

제2041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김기홍 JB금융 회장 내정자 “내실 다질 때” 8 오순민 방역정책국장 “전염병 이기는 방법은...” 27

코스피 (20일) **2060.12** (-18.72P)  
코스닥 **668.13** (-3.95P)  
환율 (달러당 원화) **1127.8** (+4.3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800%** (+0.017%p)

<0.75%P>

## 韓美 금리차 다시 확대... 고민 깊어진 韓銀

연준 FOMC 2.25~2.50%로 올려  
코스피 0.9% 하락...환율 4.3원 상승  
금융당국, 국내 시장동향 점검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내년에는 2차례로 줄여 속도를 늦출 것을 예고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 부담 등을 다소 덜게 됐다.

▶관련기사 4면

20일 금융시장의 반응 역시 예상보다 차분했다. 연준이 향후 경제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지만 급격한 투자심리 악화는 없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72포인트(-0.90%) 내린 2060.1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장 초반 2050선이 무너지면서 2047.52까지 밀리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3원 상승한 1127.8원, 국고채 3년물은 0.017%포인트 오른 1.800%를 기록했다.

전날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종전 2.00~2.25%에서 2.25~2.5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인상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내년은 2.5%에서 2.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 인상에 대해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고 점도표도 소폭 하향 조정했다. 예상 외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평가를 보면 생각보다는 도비시(통화완화적)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인상 경로가 그대로 갈지를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축된 의미를 보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제금융시장, 미국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8번의 FOMC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 금리 역전폭은 0.75%포인트로 커진 점은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일각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향후 정책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미·중 통상 갈등과 브렉시트 합의 지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주가 하락에 대해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완화적 기조가 일부 나타났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경제전망치도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후퇴 또는 경기 수축에 따른 기업 이익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유동성 증가에 대한 안도감보다 더욱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는 것은 호재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게 오늘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카풀 반대’ 집회 열린 날  
혁신성장본부장 물러난  
이재웅 쏘카 대표

‘카풀 갈등’ 부담으로 작용한 듯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승차 공유)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 날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7월 30일에 위촉된 후 5개월 만이다.



2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까지 제 능력의 한계인 것 같다”라며 “이제 저는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에 위촉될 당시 업계에서는 카셰어링 등을 비롯한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특히 그가 경영에서 물러난 지 11년 만에 복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거는 기대감도 높았다. 기재부 역시 이 대표가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을 둔 공유차량 서비스로 새로운 습관과 문화를 만들고 소셜벤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저를 위촉했던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기재부1차관이 그만두는 등 새로운 분들이 중책을 맡게 됐다”며 “저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경제팀은 새로운 분과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선 카풀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카풀 관련 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성장본부 역시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제8회 올해의 마켓리더 大賞**  
1월~12월 2018. 12. 20(목) | 장소: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 주최: 이투데이 미디어 | 후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2018 마켓리더 대상’ 영광의 얼굴들**  
김상철 이투데이 미디어 총괄대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김근호 FN7기드 대표이사(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 금융투자 업계의 발전을 이끈 마켓리더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부각하기 위한 자리로 이투데이 미디어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후원했다. ▶관련기사 14~16면

오순현 기자 story@

##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상권 키운다

자영업자 성장·혁신 종합대책

2022년까지 복합공간으로 조성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키로  
전용 상품권 18兆 규모 발행하고  
맞춤형 채무조정·폐업 원스톱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 복합문화공간, 청년창업이 가능한 ‘혁신상권’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같은 기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 원어치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당장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

자영업 성장·혁신 8대 핵심 정책과제

- 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 온누리상품권 10조 원)
- ②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 ③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④ 0%대 수수료를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⑤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⑥ 부실채권 9000억 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 기능 강화
- ⑦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 명 가입자 확보
- ⑧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상권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현재 3700억 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 원으로 확대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 원 이상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를 고려한 다양한 자영업자 보호책도 내놴. 우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임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

불가피한 폐업에도 충격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기준 8800억 원)을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사업정리 등 폐업 과정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홍중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단체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포스코, 철강·비철강·신성장으로 조직개편

## 신성장 수장에 오규석...순혈주의 타파

〈前 대림산업 사장〉

산학연협력실장 박성진 교수 선임

포스코그룹은 ‘신성장부문’ 수장으로 오규석(사진) 전 대림산업 사장을 영입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책임자로 영입하겠다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오 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림산업 사장을 지냈다.

철강부문과 동급으로 격상된 신성장부문은 2차전지 소재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맡는다. 신성장부문 산하에는 벤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실’이 신설된다. 산학연협력실장에는 당초 신성장부문 사장급 부문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박성진 포스텍(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포스코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포스코경영연구원장에는 산업연구원 출신 장윤중 박사가 영입됐다.

철강부문은 8월 1일 최정우 회장이 취임 직후 개편한 ‘철강 1·2부문 통합’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비철강부문은 대우·건설·에너지·ICT 및 국내 비철강 그룹사의 성장 전략 수립과 사업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조직개편 외에 이번 임원 승진 및 보직 인사 대상은 총 36명으로 △세대교체 △3실(실질, 실행, 실리) △성과·역량 기반 공정 △현장중심 △차세대 리더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설비투자 최악...大·中企 이분법적 정책 벗어나야”

### ‘경총 포럼’ 강단 오른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기업 엑소더스에 2분기 설비투자 1년 새 -10.8% 금융위기 수준  
규제 장벽·법인세 인상 등 악화일로 IMD 기업환경 지수 57위  
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최저임금 문제 등 정부 태도 변화 시급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이분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주최한 포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결과가 좋아졌을 때를 가정한다”며 “경제 상황에 대해 보수적으

로 바라보는 민간기구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 원장은 ‘설비투자 부진’을 꼽았다.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8년 2분기 기준 전년 대비 최저 -10.8%의 증감률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있을 때는 설비투자 전망치는 10%를 넘었다”며 “현재 추세는 IMF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나타났을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엑소더스 현상 또한 경제를 더욱 어렵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241회 경총 포럼에서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2019년 경제·산업 전망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게 만든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보통 기업이 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지출하는 금액이 약 300억 달러(약 34조 원)였다. 지금은 400억 달러(약 45조 원)까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규제 장벽, 법인세

인상 등 급속도로 악화한 국내 기업환경으로 인해 발길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는 3.04점을 기록, 미국(6.58점, 15위)과 일본(5.41점, 31위)보다 낮은 57위에 올랐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환경, 안전 부분에서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국제적인 수준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이날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발했다. 경총은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 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 시간까지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담을 지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만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연장돼야 하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도 최저임금 사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고용부 의견만 다른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현대리바트 대리점주 부담제로” ‘상생형 매장’ 내건 김화응 대표

### ‘리바트 키친 플러스’ 직영매장에 대리점 개설 땀 본사 전액 부담



국내 가구업계에서 이런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건 현대리바트가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논현점 오픈을 위해 이미 약 20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매년 5억~10억 원가량의 비용도 추가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점과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역량 있는 대리점이 많이 생겨야 매출이 늘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논현점을 시작으로 서울 목동과 용산, 부산, 대전 등 임대료 급등으로 개인 사업자가 대형 주방가구 대리점을 개설하기 어려운 전국 주요 핵심

상권에 상생형 주방 전시장 ‘리바트 키친 플러스’ 매장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리바트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방 가구 사업 강화를 위해 영업 전략을 기존 직영점·대리점 중심의 판매에서 인테리어 전문점으로 확대했다. 주방가구 전문 시공팀도 올해 135개로 늘렸다. 그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주방가구 매출은 지난해보다 30% 증가해 올 연말까지 매출 700억 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대리바트는 B2C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주방가구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주방 가구 대리점을 적극적으로 키워 현대리바트와 대리점주가 상호 윈윈하는 상생형 사업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김화응<사진> 현대리바트 대표가 업계 첫 상생형 전시장을 내놓으며 주방 가구 사업의 다크호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일 김 대표는 주방가구 전문 전시장 리바트 키친 플러스 논현점을 21일 연다고 밝혔다. 이 매장은 개인 사업자가 대리점을 개설할 때 필요한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모두를 리바트 본사가 부담하는

파격적인 형태의 모델이다.

논현점은 현대리바트가 직영 매장에 대리점을 입점시키는 첫 주방가구 전시장으로 서울 주요 가구거리 중 한 곳인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3개 층(지하 1층~지상 2층), 700㎡(약 210평) 규모로 3000만 원대 초고가 제품부터 100만 원대 제품까지 현대리바트의 주방가구 전 제품이 총망라돼 전시·판매된다.

이 매장은 일반 리바트 대리점 매장과 달리 입점한 대리점주에게 일체의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상생형 매장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논현점 오픈에 쓰인 임대보증금, 매장 인테리어 구성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 일체와 월 임대료와 매장 관리비, 마케팅비 등 향후 소요될 운영 비용을 모두를 부담한다. 입점한 대리점은 고객 상담 등 영업 일체를 전담하는 구조다.

### 안정적 자원수급을 위한 KORES의 ‘비축 광산물 방출 및 대여사업’

# 국민경제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비축광산물 방출 및 대여사업이란?

광물가격의 일시적 급등, 공급장애가 발생하는 국가적 수급위기 시에는 방출을 하고 수급차질을 겪거나 예상되는 민간업체에게 평상시에는 대여를 실시하여 국가경제를 안정화하는 민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사업실  
Tel. 033-736-5833-6



# “상업용 부동산 투자 쏠림… 불황 오면 금융권도 타격”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올해 수익률, 예금이자 4배” 투자자, 오피스·상가 등에 몰려 부동산 하락엔 빛 못 찾을 수도 금융권에 대출건전성 강화 권고

부동산값 하락이 가계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연간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구는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 제1금융권인 은행까지도 위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 예금이자보다 4배나 많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소식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자들과 대출이 몰린 것도 위기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을 넘는 가계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을 초과하는 가구 10가구 중 6가구(58.3%)는 금융자산보다 많은 금융부채를 안고 있었다. 반면 이들 가구의 93.4%는 총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았다.

이는 빚을 져가며 집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사들였다는 뜻이다. 결국 유동성



구분	단위	신용등급별				소득수준별				구분	단위	연령별		구분	단위	다중채무 여부	
		고	중	저	전체	고	중	저	전체			20~39	40~59			60~	전체
DSR)100%	고	59.3	52.9	56.9	37.3	20~39	19.0	30.2	DSR)100%	다중	44.0	44.7					
	중	33.2	35.7	23.8	30.4	40~59	56.1	49.7		비다중	56.0	55.3					
	저	7.5	11.4	19.3	32.3	60~	24.9	20.1		전체	다중	32.4	21.9				
	전체	24.1	29.2	24.6	37.3	20~39	25.1	33.5			비다중	67.6	78.1				
전체	고	69.7	57.4	64.1	43.1	전체	40~59	57.9	50.0	금역 기준		차주수 기준					
	중	24.1	29.2	24.6	37.3		60~	17.0	16.5								
	저	6.2	13.4	11.3	19.6												
	전체	24.1	29.2	24.6	37.3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DSR 100 초과 가구 중 저소득자(32.3%)와 60대 이상(20.1%), 다중채무자(44.7%) 비중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소득여건 악화나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변성식 한은안정총괄팀장은 “DSR 100을 넘는 차주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들이 많다. 특히 유동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도 상환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몰렸다. 2013년 월평균 1만3000건이었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올 들어 9월까지 월평균 3만 1000건으로 늘었다. 이는 오피스와 중대형 상가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올해 각각 7.4%와 6.7%에 달해 같은 기간 은행 예금금리(1.8%)의 4배에 달하는 수익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도 2013년 13조9000억 원에서 올해 33조 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14조6000억 원에서 24조 6000억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잔액이 나 증가세 모두 주담대를 앞지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고 관련 금융익스포저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 등으로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임대소득이 감소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주택 가격이 향후 2년간 30% 하락한다는 것을 가정해 한은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1·2금융권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자본비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올 2분기 말(6월 말) 현재 14.5%였던 저축은행(자기자본

비율 기준)과 608.8%였던 증권사(NCR·순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20년 2분기 말 각각 9.8%와 441.6%로 급락했다. 은행(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기준)은 같은 기간 15.5%에서 13.4%로 줄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금융 불균형 해소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3분기(7~9월) 중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1%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혁신거점 육성하고 사각지대 밀착지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정책대상 인식” 소상공인 단체도 긍정평가

이번 종합대책은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3번이나 나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전방위적이고 과감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홍준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영업자들을 정책 대상으로 삼았고 자생 가능한 최대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환경 조성 =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 원을 지원 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내년 13곳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제품 개발에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도 만든다. 내년에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단계에서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정부는 우선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 1만 명에게 배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 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의 90%를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 정부는 노란 우산공제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재 136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180만 명까지 늘리고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매칭,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공제 가입률을 확대키로 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도 지원한다. 또 자영업 밀집지역 안에 맞춤형 어린이집과 커뮤니티센터 등도 마련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이번 발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주 새로운 대책은 없지만 구조적 재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파월 '마이웨이'에... 예고된 인상에도 시장은 반발

성장률 높이고 금리 낮춰 '모순' "어중간한 결정 혼란 부추겨" 다우 1.5%·나스닥 2.2% 하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2.00~2.25%에서 2.25~2.50%로 인상했다.

FOMC 성명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흘러나오자마자 이날 상승세를 보였던 다우지수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인덱스도 0.16% 하락했다.

이날 하락으로 다우지수는 연중 최저치였던 3월 말 수준을 넘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2% 급락했다. S&P 500지수는 장중 1.5%까지 올랐다가 FOMC 성명 발표 이후 2.3%까지 급락하고 나서 1.5%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뉴욕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1994년 2월 이후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

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효과와 낮은 실업률 등 고용시장 호황으로 얻은 1년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연준의 올해 총 4차례 금리 인상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준은 이날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종전의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2020년은 1회에 그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시장이 선호하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심 금리 동결을 원했던 투자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시장 혼란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FOMC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12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연준이 부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다. 연준을 거세게 비판하는 트럼프는 FOMC 성명이 나오기에 앞서 17~18일 잇따라 트위터 트윗을 올려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정권 인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례적인 것은 그동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던 언론들도 한편에 섰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시의 적절한 좋은 조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는 경로를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아이신문(닛케이)은 미국 단기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한 차례 금리 인상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장과 연준의 현실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연준 가이드스(Guidance·선제 안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도 시장 혼란을

부채질했다. 연준은 이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장기성장률 전망치는 9월의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하면서 중립금리 성격의 정책금리 장기 전망치는 3.0%에서 2.8%로 낮췄다.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는 잠재성장률과 연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연준은 모순되는 정책 기조를 취한 셈이다.

닛케이는 연준의 이런 어중간한 태도에 어떤 계기가 생기면 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조시 나이(Josh Nye)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소비자가물가지수(CPI) 이외 다른 경제지표도 주목해야 한다"며 "임금 상승률은 3%에 달해 도매물가가 높아졌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이주열 "예상된 결과... 내년 인상경로 봐야"

"美 속도조절 땐 통화정책 여력" 흥 부총리 "금융 변동성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의 결과는 아니다.", "예상한 것과 비슷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과 당초 3회로 예상됐던 인상 횟수를 2회로 줄인 '속도조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다소 안도하는 쪽에, 흥 부총리는 여전히 긴장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 1층 로비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평가를 보면 생각보다는 도비시(통화완화적)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인상 경로가 그대로 갈지를 지켜봐야 한다. 합축된 의미를 보면 글로벌 경제상황과 국제금융시장, 미국 경제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내년 8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그 속도가 예

설명했다.

반면 흥 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고 국제금융 변동성도 커졌다고 볼 수 있어 더욱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노력을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다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연준의 금리인상과 속도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은) 통화정책에도 고려 요인은 맞다"면서도 "얼마 이상 벌어지면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은 집행 간부인 윤면식 부총재 추정 금통위원이 "미 연준 정책금리와 격차 확대에 따른 일반의 불안심리 완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며 금리인상에 찬성한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박원순 "제로페이 편하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날인 20일 서울 중구 위치한 한 카페에서 서울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 노동자 10명 중 9명은 非노조원

노동조합 조직률 10.7% 불과 민간 9.5%, 공무원은 68.5%

195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9만300명(2%) 늘었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근로자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조 조합원수를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수로 나눈 수치로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0.7%였다. 이는 전년 10.3%보다 0.4%포인트(P) 오른 것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조직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노조 조직률 추이를 보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했다 최근 상승 전환했다. 2004년에는 10.6%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고, 2010년도에는 9.8%까지 추락했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1%로 소폭 오른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조 조직률은 29.1%였으며 우리나라는 비교 가능한 29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부문 9.5%, 공무원 부문 68.5%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57.3% △100~299명 14.9%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률이 낮았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LCC 진입 쉬워진다

앞으로 항공운송 사업자의 면허기준이 완화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가운데 불합리한 시장 진입장벽으로 꼽혀온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란 요건이 삭제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안이 올해 5월 의원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LCC시장의 신규 사업자 진입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과

항공요금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도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 전문 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공시 의무 위반

공시 회피 목적으로 '쪼개기 거래'... 공정위 23억 과태료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4곳이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등) 공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자금을 분할해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2083개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통합 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금호아시아나, OCI, KCC 등 35개 집단의 139개 소속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는 모두 23억33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나눠 거래한 일명

'쪼개기' 거래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한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인 아시아나개발은 같은 계열사인 금호티앤아이에 2017년 6월 2~13일 총 100억 원을 공시기준 금액(18억2200만 원) 미만으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인 금호산업도 금호고속에 2016년 12월 6~7일 총 92억 원을 공시기준 금액(50억 원) 미만으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금리 등 자금대여 거래조건과 상환일, 자금대여 목적이 동일하고, 한번에 자금을 충분히 대여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자금을 분할해 거래했다"며 "이번에 쪼개기 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공시의무 면탈 행위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 한국당, 임종석·조국 檢 고발

### 김 “다른 동료도 민간인 사찰” 野, 文정부 책임론 제기 총공세 典 “개인 일탈·정치공세” 일축 특검·국조로 번질 가능성 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이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검

찰에 고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레임’을 앞세워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향후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를 받는 개인의 일탈 행위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전 특감반원이 다른 동료들도 첩보 범위에 벗어난 동향 파악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만일 추가 민간인 조사 첩보가 더 나온다면 청와대가 수세에 몰릴 수 있고, 조 수석 퇴진론은 물론 임 비서실장 사퇴론까지 불거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으니 어떻게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냐”며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뭉개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것만으로도 이 정부와 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여론을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건 당사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정치공세인지, 국조를 할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 여당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민간인 사찰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자 권력 남용으로, 과거 이 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민이 분노하고 야당이 비판했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김하늬 기자 honey@

## 박능후 장관 “낮은 보험료율,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 “연금보험료 5년마다 1% 올리자”

###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을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에서 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필요 보험료율보다 낮은 0~4%포인트(P) 인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율 최종 목표치를 제시해 봐야 입법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5~10년만 바라보고 가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1988년도 국민연금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보험료를 올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으로는 정권을 잡은 쪽에서 부담을 회피하려 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았다.

그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데,



1%씩 부담을 나눠 가지면 어느 정부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상대방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5년마다 책임을 분담하기 때문에 해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3~4%P 인상하는 안(3·4안)이 담겼다.

박 장관은 “일단 12%까지는, 13%까지는 3·4안처럼 5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인상되고 나면 보험료를 절대 못 올린다는 국민의 저항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3%를 올리면 12%에서 15%, 13%면 16%가 되는데, 유럽 선진국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가 평행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강릉 펜션사고 희생자 추모 묵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 펜션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

미래세대를 위한 대학혁신

1. 교학상장의 길
2. Peace BAR Festival 2018
3. 경희의 융복합 교육

경희대 우주과학과 신중호 교수 연구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33개 기업과 함께 개발해 지난 12월 5일 발사에 성공한 기상관측 전용위성 '천리안 2A'호 상상도. (사진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읽다

### 또 하나의 '후마니타스', 경희의 융합·사회맞춤형 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 대학 교양교육을 전면 쇄신한 경희대가 융합 교육모델을 정립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면서 대학 특성화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이어 올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대 공대 혁신사업',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에 잇달아 선정돼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읽어내는 경희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합니다.

### 다양한 전공 연계하는 개방형 대학

- 학부 9개, 대학원 2개 등 총 11개의 융합교육과정 운영
- 2017년 [미래자동차-로봇트랙] [융합리더트랙] [게임콘텐츠트랙] [데이터사이언스트랙](이상 학부 과정) [스마트 에너지공학 교육트랙] [스마트제조공학 교육과정](이상 대학원 과정)
- 2018년 5개 융합교육과정 신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스마트공학 융합전공]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4D 아트 융합전공]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

\* 학생들은 1학년 말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원하는 트랙을 선택 원하는 트랙이 없을 경우 학생이 새로운 융합 분야 창조

### 기업과 손잡고 사회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과 함께 25개 산학협력 맞춤형 트랙 운영 [푸드투어 창업트랙(외식경영학과)] [나노융합소재트랙(응용화학학과)] [국제개발협력트랙(국제학과)] [피부생명공학트랙(유전공학과)] [Genius(정보디스플레이학과)] [혁신기업 실습트랙(경영학과)] [가상현실콘텐츠 산학협력트랙(디지털콘텐츠학과)] [패션 이노베이션 스페셜리스트 트랙(의상학과)] [바이오의약 CMCT랙(한방재료공학과)]

## 탄력근로 적용 기업 24% “주 52시간 시행 어렵다”

### 1순위 개선 사항으로 ‘노동시간 사전특정 요건 완화’ 꼽아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 4곳 중 1곳은 현행 제도로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력적 근로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10~11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436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였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도입 비율이 각각 4.3%, 3.1%에 그쳤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물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요청(37.8%),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25.9%)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활용 사업체의 75.7%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24.3%의 기업은 현행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2순위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19.5%)’, ‘단위 기간 확대(3.5%)’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개선 사항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도 탄력근로제 개선 항목으로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 보전 국가 지원(25.8%)과 노동시간 상한 확대(18.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2019학년도 석학초빙

분야: 미래학, 평화학, 미학, 인지과학 분야 00명 임용정보: bang.khu.ac.kr/hjis/ 문의: 서울캠퍼스 교무과 02)961-0051, 국제캠퍼스 교무과 031)201-3031

### 2019학년도 정시모집

접수기간: 2018.12.31(월) 10:00 ~ 2019.1.3(목) 18:00 입학정보: iphak.khu.ac.kr 원서접수: www.uwayapply.com 입학상담: 02)1544-2828

##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 2019학년도 학부 학생모집

1차: 2018.12.1(토) ~ 2019.1.11(금) 2차: 2019.1.23(수) ~ 2019.2.15(금)

### 2019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9.1.7(월) 10:00 ~ 2.8(금) 21:00 서류제출: 2019.1.7(월) 10:00 ~ 2.9(토) 12:00

# 애플 '기침'에... '몸살' 난 대만기업

스마트폰 수요둔화·미중 무역마찰  
아이폰 신작 판매 부진 겹치며 고전  
주요사 11월 매출 증가율 6%P '뚝'  
내년 글로벌 IT 경기전망 '먹구름'

세계 IT 경기 선행지표로 꼽히는 대만 기업들의 내년 실적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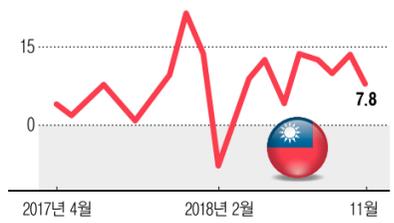
애플 아이폰 판매 부진에 대만 기업들의 지난달 매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글로벌 IT 경기가 내년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주요 IT 19개사의 11월 매출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1조3091억 대만달러(약 48조 원)를 기록했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10월보다 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으며 과반을 넘는 11개사가 매출 감소를 보고했다.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면서 대만 제품을 공급받는 IT 기업들의 비용절감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대만은 미국 애플과 중국 화웨이 등 세계 기술 대기업의 위탁생산이나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에 매출 발표되는 대만 기업의 매출 실적은 향후 IT 경기를 점치는 선행 지표로서 전 세계 투자자가

대만 주요 IT 19개사 월별 매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비 기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주목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 조립을 담당하는 세계 최대 위탁생산업체 흥하이정밀공업과 경쟁사인 페가트론의 실적은 관망했다.

흥하이 매출은 전년보다 5.5% 늘었다. 애플 아이폰 조립 수요 이외의 중국 고객사 스마트폰과 서버 생산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입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페가트론 매출은 40% 이상 급증했다. 이 업체는 아이폰 신모델 중에서도 LCD 패널을 장착했으며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XR' 생산을 주로 담당해 우려를 자아냈으나 실적으로는 달랐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아이폰8' 인기가 다시 높아진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이폰 부진 영향은 스마트폰 관련 부품업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케이스를 생산하는 캐처테크놀로지(Catcher Technology) 매출은 전년보다 10% 줄었으며 10월에 비해

서는 25%나 감소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직후인 11월 이 기업 매출이 줄어든 적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용 광학 렌즈 부문 세계 최대 기업인 라간정밀은 매출이 약 30% 감소했다. 라간 매출에서 애플 비중은 약 40%에 이르고 50% 이상은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만 유안타증권의 투징팅 투자고문은 "세계적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의 맥이 풀린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춤한 아이폰 판매와 더불어 중국 소비둔화도 걸림돌이다. 데이터 임시저장에 사용하는 반도체 메모리 DRAM 세계 4위 생산업체 난야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매출이 6% 줄었다. 매출 감소는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난야는 TV 등 가전제품 시장을 개척해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규모가 큰 중국 가전시장의 부진으로 제품 단가 하락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대만의 한 위탁생산업체 임원은 "앞으로가 문제"라며 "기업은 소비 불확실성을 싫어해 재고를 줄이고 있으며 조립과 부품을 담당하는 업체들도 주문 감소에 대비해 설비투자 및 인력 확충을 억제하는 부정적 주기가 시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이티를 방문한 조지 소로스(가운데)와 힐러리 클린턴(왼쪽 두 번째). 로이터

##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FT 올해의 인물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

홀로코스트 생존자로  
독재·인종차별에 맞서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미국의 거물 투자자이자 자유주의적 활동가인 조지 소로스가 뽑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과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반민주주의·인권적 우익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소로스가 그간 자유민주주의에 헌신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FT는 19일(현지시간) 소로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기수(a standard bearer for liberal democracy)'라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FT는 "올해의 인물은 대개 성과를 반영해 선정하지만 이번 소로스 선정은 그가 대표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로스는 헝가리 태생 유대인으로 10대 시절 나치 박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헤지펀드 회사인 퀴텀펀드로 성공한 후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을 세우고 지금까지 약 320억 달러를 기부했다. 올해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에 1500만 달러를 내는 등 지

난 30여 년간 자유주의적 정치세력과 소수자 집단에 든든한 자금줄이 돼 왔다.

경제적 후원뿐 아니라 독재와 인종차별, 무관용 등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로스는 모국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에 유럽 국경을 개방하고 이민자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충돌했고 조작된 콘텐츠를 퍼뜨린 페이스북을 비판하다 페이스북으로부터 사찰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종주의적 극우세력의 테러 대상이 됐다. 극우세력은 소로스가 미국으로 밀려드는 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미 이주민들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하고 있다.

FT는 "자유민주주의가 냉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등의 극우 세력 등으로부터 포위당한 상태"라며 소로스 수상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소로스가 후원하는 탐사미디어와 시사회 그룹이 지난해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좌초시켰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다운 기자 gamja@



화웨이 보복?...中, 캐나다인 또 억류  
중국이 최근 들어 세 번째로 캐나다 국민을 억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 있는 주중 캐나다 대사관을 지키는 경찰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전날 중국에 세 번째로 억류 중인 자국민은 비자 문제 때문으로 화웨이와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명왕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된 이후 잇따라 중국 당국이 캐나다 국민을 억류해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전자담배 불붙인 '말보로'...“‘줄’에 128억 달러 투자”

지분 35% 인수설에 기업가치 경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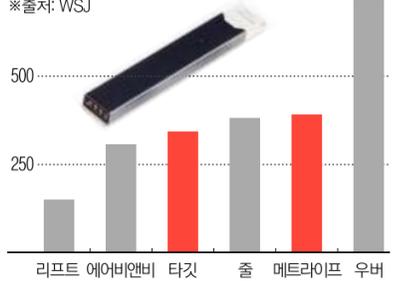
관련담배의 대명사 '말보로' 브랜드를 보유한 알트리아가 전자담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트리아가 128억 달러에 전자담배업체 '줄(Juul)' 지분 35% 인수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알트리아의 줄 지분 인수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알트리아의 투자로 줄의 기업가치는 380억 달러로 경총 뛰었다. 이는 올해를 투자 유치에 나섰을 당시의 160억 달러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이로써 줄은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등 실리콘밸리 대표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들을 뛰어넘는 가치를 자랑하게 됐다.



알트리아의 행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웰빙 붐을 타고 쇠퇴하는 궤형 담배를 대신할 새 수익원을 찾으려는 알트리아의 열망이 그만큼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알트리아의 주요 주주와 가까운 한 은행가는

FT에 "전통적인 기업가치 분석방법을 따르면 이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인다"며 "그러나 기존 담배 판매가 줄어들고 줄에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면 높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은 2015년 6월 1일 미국 전자담배업체 팩스랩스(Pax Labs)가 설립했으며 지난해 분사했다. 설립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종 과일과 초콜릿 등 다양한 맛과 향에 휴대성이 간편하고 라이터가 필요 없다는 장점 등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약 15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줄은 올해 연 매출 2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하다. 이는 줄 자체 전망보다 빠른 성장세다. 줄은 미국 전자담배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순이익률도 높게는 75%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져 알트리아가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금에 놀리고, 달러에 밀리고... 엔화 '시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고 있지만 대표 피난처 중 하나였던 일본 엔화는 금이나 미 국채와 달리 유독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S&P 500지수는 9월 20일 고점 대비 14.5% 떨어졌다. 그 이후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3.8% 올랐지만 달러 대비 엔화 가격은 지난주 1.1% 오른 후 연중 최저치 수준인 112~113엔 부근을 맴돌고 있다.

WSJ는 올해 4월 달러-엔 환율이 104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최근 가격 추세는 엔화 가치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수년간 일본이 최저금리 기조를 이어오면서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과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였고 대내·외 리스크가 발생하면 해외 보유자산을 털어내고 다시 엔화로 돌아왔다. 이에 엔화는 변동성 장세에서 피난처 성격을 가진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금리가 낮은 통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에서도 펀드매니저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 싱가포르의 아시아마크로 전략 담당자인 사미어 고엘은 "올해 달러-엔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올해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굳건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WSJ는 펀드매니저들이 여전히 엔화를 캐리 트레이드에 이용하면서도 유로 등 다른 통화를 찾아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투자자들 역시 최근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엔화가 아니라 해외 채권 등을 대신 사들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올 들어 4번째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같은 날 일본은행(BOJ)은 통화정책을 기존대로 유지한 점도 엔화 가치가 약세인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일본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9%로 낮추고 생산·산업 지표 등도 악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BOJ에 대한 불만이 엔화 약세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다운 기자 gamja@

Life is Good



프라엘 Pra.L



더 히스토리 오브 후 The history of 후



이브아르 YVOIR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당신의 얼굴에 머물 수 있도록  
LG가 있습니다

〈DGB금융 회장〉

#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김태오

취임 2주 만에 대대적 인적쇄신 퇴직자들 “임원 60% 정리하겠다” 김 회장, 금융당국과 조율” 주장 대구은행장 후보선정 놓고 잡음



사직서 제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박인규 전임 회장이 채용 비리, 비자금 사태로 물러난 이후 취임

용감독원에도 직접 찾아가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안 및 경영 방안 등을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7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도 “금융당국이 인적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퇴직 임원들의 주장대로 김 회장이 대구은행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전 임원의 60%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감독당국과 조율했다면 민간 금융회사 금융당국 간의 밀실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26일 박명흠 대구은행장 권한대행의 임기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은행 이사회와 지주 지사회가 행장후보 선정 방식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이 최근 개정한 인사시스템에 따라 은행장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대구은행 현직 임원 중에는 한 명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태오(사진) DGB금융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적쇄신이 ‘부당해고’에 이어 ‘관치금융’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회장이 CEO 리스크를 덜기 위해 강력하게 단행한 인적쇄신이 되레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이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방노동위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사직서 제출 당시 은행장 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뿐이고, 추후 돌려준다’며

한 만큼 그의 조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안팎의 기대를 받았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룹 조직 안정과 화합을 위해 조직 및 인적쇄신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주 만에 대구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았다. 이후 7월 임원 17명 가운데 9명을 해임했다.

김 회장은 이후 최중구 금융위원장과 회동하며 인적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당면 과제였던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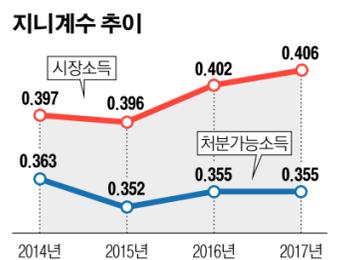


**신한은행-삼성전자 전략적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삼성전자와 공동 마케팅 및 신상품 개발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헬스플러스적금 등의 협업을 진행한 데 이어 플랫폼 금융과 디지털 혁신 기술을 융합한 제휴 사업을 통해 양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왼쪽)과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가림촬영)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 커지는 ‘소득 불평등’

지난해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0.402→0.406  
가구 평균소득은 4.1%... 5년 만에 최대폭 상승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4.1% 늘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빈곤 가구소득도 소폭 늘었으나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커져 불평등이 심화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5705만 원으로 전년보다 4.1% 올랐다. 근로소득이 3639만 원(6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소득 1244만 원(21.8%), 재산소득 380만 원(6.7%)이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감률을 보면 30대 미만 가구주가 8.0%로 가장 크게 올랐다. 50대는 3.3% 오르는 데 그쳤다. 가구주 직종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5.5%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자가 2.1%로 가장 낮았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다소 개선됐다. 평균 소득은 1057만 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하지만 불평등은 그대로였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같았다. 특히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16년 0.402에서 지난해 0.406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지수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한국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6년 기준 OECD 35개국 평균 지니계수는 0.317이다.

부의 쏠림도 심화됐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가구의 47%에 달했다.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보다 0.02배 포인트 높아진 7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111만 원으로, 전년보다 130만 원(4.4%) 늘었다. 소득이 낮은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923만 원으로 전년보다 4.2%,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는 6460만 원으로 4.5% 늘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JB금융 회장 내정자〉

# ‘내실경영 성과’ 공언한 김기흥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집중 디지털 뱅킹·증금리 대출 늘려 대형지주와의 경쟁력 높일 것 배당확대 등 주주친화책 강화



저하게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주친화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성장 과정에서 불행히도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주가는 오르지 않고 상대 가치는 더 떨어졌다”며 “배당 수익률 등을 높이는 등 그룹의 배당 정책을 확립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주된 관심 사항”이라고 했다. 배당성향도 다른 시중은행 수준인 2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JB 배당성향은 6.9%에 불과하다.

대형 금융지주와의 경쟁력으로 ‘디지털 뱅킹’과 ‘증금리 대출 확대’를 꼽았다. 김 내정자는 “우리 같은 소형 회사가 경쟁력 있는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화’라며 “디지털화는 내실화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톱 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은행이 대형화해서 소기업 성과를 거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JB금융에 속해 있는 은행은 지역근거지가 완전히 달라 각 지역에서 기반을 갖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김기흥(사진) JB금융지주차기 회장 내정자는 20일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주 친화 정책을 펴고 디지털 뱅킹과 증금리 대출 등을 강화해 조직 내실을 다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JB금융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JB금융 자산이 6년 동안 300% 성장했다”며 “김 회장이 성장 기반을 다져줬다면 이제 철

서 불행히도 우리가 성장한 것만큼 주가는 오르지 않고 상대 가치는 더 떨어졌다”며 “배당 수익률 등을 높이는 등 그룹의 배당 정책을 확립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주주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배수(PBR)가 7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는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 주담대 금리, 은행 올리는데 보험사는 되레 내려

생보업계 평균금리 3.87%... 1월보다 0.22%p 떨어져  
보험사 ‘국고채’ 기준 금리 산정... 은행은 ‘코픽스’ 기준

연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보험사 대출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타고 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각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평균금리는 3.65%로 1월 평균 3.87%보다 0.22%포인트(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푸른생명(4.3%)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교보생명(3.22%)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1월보다 대출금리가 0.77%포인트 하락했다.

보험사의 ‘금리 역행’ 현상은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국고채(3년물)를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올해 초부터 국고채 금리는 줄곧 내림세다. 국고채 금리는 전날 기준 1.8%였지만, 1월 2일에는 2.12%였다. 반면, 은행은 시중 8개 은행이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해 가중평균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코픽스 금리는 1.96%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은행권보다 더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관련 대출 영입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16개 생명보험사 가계대출 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부동산담보대출금은 2400억 원 줄었다.

이와 관련,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영업에서 그리 크지 않아 위험을 안고(주택담보대출 등을) 공격적으로 영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업계도 영업이익이 적은 대출 영입을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월부터 보험사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수요층이 줄어들었고, 보험사 역시 자본 건전성 비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

생명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

	2018년 11월 평균금리	1월 평균금리	차이
한화	3.54	3.84	-0.3
ABL	3.27	3.54	-0.27
삼성	3.58	3.68	-0.1
흥국	3.7	4.15	-0.45
교보	3.22	3.99	-0.77
신한	3.57	4.01	-0.44
푸른생명	4.3	4.04	0.26
농협	3.98	3.71	0.27

※출처: 생명보험협회

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마당에 보험사가 대출 영입에 나서겠느냐”며 “(대출을 늘리면) 금융당국의 견제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 금리가 항상 은행보다 높아 영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금리가 역전되니) 은행보다 금리를 낮게 책정해 영업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영욱 기자 dragon@

## 케이뱅크, 743억 추가 증자 완료... “대출 정상화”

케이뱅크가 743억 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완료하고 대출 영입을 정상화한다.

2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 은행 주주사들과 우리사주조합은 보통주 1486만2680주(743억1340만 원) 납입을 완료했다.

10월 30일에 납입 완료된 전환주 463만6800주(231억8400만 원)에 이어 이번 보통주 납입으로 케이뱅크 자본금은 총 4774억9740만 원으로 증가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본금 목표를 달성하고 앞으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번 증자에 총 9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고 밝혔다.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는 그간 중단됐던

대출 상품을 정상 운영한다. 케이뱅크는 사전적 BIS자기자본비율 관리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월별 대출 쿼터제를 시행하고 대출 영입을 일부 중단했다.

앞으로 직장인K마이네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슬림K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등은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미니K 간편대출은 혜택 강화를 위한 금리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리뉴얼 오픈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들과 협의해 내년에는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필요한 자본금까지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이대론 안된다”...삼성 중국법인 가전부문장 교체

삼성전자가 중국 법인 소비자가전(CE) 부문장을 교체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조직개편 및 보직인사를 통해 대만 법인장이던 이정주 상무가 중국(판매)법인 CE부문장으로 이동했다. 기존 중국법인 CE부문장 진연택 상무는 물러났다. 이정주 신임 CE부문장은 중국법인에서 TV와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신임 부문장은 과거 중국 서북지사장을 맡은 바 있고, 대만도 같은 중화권이라 이미 경험이 풍부하다”며 “중국 시장 공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중국법인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TV와 생활가전 부문에서도 하이얼,

중화권 베테랑 이정주 상무 임명  
中 법인 3분기까지 800억 적자  
스마트폰 물론 가전도 지지부진  
하이얼·하이센스 경쟁 이겨내야

하이센스 등 현지 업체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위기를 느낀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중국법인 총괄을 권계현 부사장으로 교체하고, 같은 해 8월 중국 내 기존 7개 판매 거점 이하 32개 사무소를 지역거점 구분 없이 22개로 재편하는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판매법인 '삼성 차이나인베스트먼트(SCIC)'가 손실률

전환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SCIC는 올 3분기까지 매출 2조6708억 원, 순손실 80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과 비교해 매출은 36% 감소했고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스마트폰 부진이 주요 원인이지만, 소비자 가전 역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0여 명의 전 세계 법인장들이 참석한 이번 주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도 '중국'이 화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TV·가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데다, 중국에서의 경영환경도 나날이 악화하는 탓이다.

재계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자국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큰 데다, 제품 기술력도 많이 좋아져 현지 시장 공략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14억 인구의 중국은 삼성전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세계 첫 '후면카메라 4개' 갤럭시A9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후면에 쿼드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A9'을 21일 국내에 출시한다. 레모네이드 블루, 버블검 핑크와 캐비어 블랙 3종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59만9500원이다. 이 제품은 후면에 2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망원 렌즈, 초광각 렌즈, 심도 렌즈를 장착해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 밖에 6GB 램·128GB 내장 메모리·38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사용법 알려드릴까요?” 말 통하는 AI가전

(LG 씽큐)

미리 보는 CES 2019

기아차, MIT미디어랩 협업  
운전자 감정 실시간 분석  
차내 온도·조명·향 최적화



LG전자는 내달 8일 개막하는 CES 2019에서 'LG 씽큐 AI 존'을 구성해 새로워진 LG 씽큐를 선보인다. 아래는 기아차의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 사진제공 LG전자·기아차

LG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제조사들이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9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에서 혁신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LG전자는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CES 2019'에서 인공지능(AI) 'LG 씽큐(LG ThinQ) AI 존'을 대거 구성해 새로워진 LG 씽큐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LG 씽큐는 단순히 명령어에 따라 동작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고객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제품 사용자 경험 강화 △최상의 성능 유지를 위한 능동적 제품 관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특징을 갖췄다.

LG 씽큐 제품은 고객에게 제품의 세부 기능과 작동 방법을 음성이나 문자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또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 설정 패턴을 학습해 버튼 하나 또는 말 한마디만으로 원하는 설정을 세팅한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제품의 사용량을 파악해 고객에게 필요한 소모품을 알려주고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음성이나 문자로 문제점과 간단한 조치방법을 알려주고, 서비스센터로 연결해 수리 예약을 도와준다.

LG전자는 외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LG 씽큐 제품과 연관되고 고객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음식재료 주문, 세탁 세제 주문, 청소 대행 접수까지 도와줄

예정이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번 CES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an Even Better Life)'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LG전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기아자동차는 운전자와 교감할 수 있는 자동차의 첨단 제어 시스템을 소개한다. 기아차는 자율주행기술이 보편화돼 인간의 이동성이 극도로 향상된 미래 사회를 그리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감성 주행'을 새로운 시대상으로 제시한다.

기아차는 '감성 주행' 시대를 주도할

핵심 기술로 운전자와 자동차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l-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이하 R.E.A.D.)' 시스템을 선보인다.

앞서 기아차는 MIT 미디어랩 산하 어펙티브 컴퓨팅 그룹과 협업해 R.E.A.D. 시스템을 개발했다.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R.E.A.D. 시스템은 생체 정보 인식을 통해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소리와 진동, 온도, 향기, 조명 등 운전자의 오감과 관련된 차량 내 환경을 최적화해주는 첨단 기술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권태성 기자 tskwon@

## 이스타항공 '보잉737맥스8' 여객기 국내 첫 도입

이스타항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보잉 신기종인 B737-맥스8 여객기를 들여온다. 이스타항공은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딜리버리 센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B737-MAX 8 기종(HL8340)의 현지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있는 보잉 딜리버리 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산 무니어 보잉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부사장을 비롯한 보잉 관계자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인도식을 마친 HL8340편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 딜리버리센터를 출발해 오전 8시 45분 앵커리지에 도착했다. 이후 일본 치토세 공항을 거쳐 21일 오후 5시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B737-MAX 8 신기종은 더 넓은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동남아 전문가'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로

롯데 유통부문 임원 이사  
컬처웍스 차원천, 부사장 승진  
영화 '신과함께 1·2' 흥행 공신



문영표 부사장 롯데마트 대표  
차원천 부사장 롯데컬처웍스 대표

롯데는 19일 롯데지주에 이어 20일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롯데컬처웍스 등 유통 및 기타부문 16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어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문영표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롯데마트 대표를 맡는다. 신임 문 대표는 1987년 롯데상사에 입사해 2007년 롯데마트로 이동했다.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롯데마트의 해외사업 성장을 주도했다. 2009년 인도네시아법인장, 2011년에는 동남아본부장을 지낸 동남아 영업총으로 꼽힌다. 2017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옮겨 올해부터 대표직을 맡아온 문 대표는 국내는 물론 동남아지역의 할인점 사업 및 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롯데마트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꼽힌다.

차원천 롯데컬처웍스 대표는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개봉한 '신과함께 1·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넘기며 한국 영화 최초로 '쌍천만'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개봉한 '완벽한 타인'도 500만 관객을 넘기는 등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여성 신규 임원 및 승진자가 배출됐다. 김혜영 롯데쇼핑 e커머스 AI연구소장이 상무부A에서 상무로 1년 만에 발탁 승진됐다. 롯데제과 트렌드 분석시스템 '엘시아', 롯데백화점 쇼핑도움미 '엘봇' 등 AI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김혜라 롯데백화점 해외패션부문장, 이미선 롯데컬처웍스 공간기획팀장 등 여성 신규 임원이 2명 추가로 배출됨으로써 이번 인사에서 배출된 신규 여성 임원은 6명, 롯데그룹의 여성 임원은 총 36명이 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9조 소송 휘말린 현대중

카타르 해양플랜트 하자 관련  
계약금의 9배로 청구액 늘어  
보강공사 협상서 압박 의도

현대중공업이 약 9조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다. 2011년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해양플랜트의 하자 보수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던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소송 청구금액을 최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20일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3월 하자보수 관련 중재신청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소송 청구금액 2조 7750억 원을 최근 9조888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가 9개월 사이 약 3배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초 계약금액(8억 6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탑사이드·거주구·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제작·설치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마무리됐다. 다만, 이후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시험 운전 중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의 교체를 주장하며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2~3년이 소요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바르잔가스컴퍼니의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진행될 보강공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액의 청구금액을 제시해 중재신청에 임하는 현대중공업의 부담감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ICC는 이 중재신청과 관련해 중재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일각에서는 바르잔가스컴퍼니의 이번 청구금액 증액이 현대중공업의 우발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회계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2204억 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해 놓은 상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SKT “5G 스마트팩토리 기술로 제조업 혁신 앞장”

## 스마트팩토리 확산전략 공개

SK텔레콤이 5G 통신망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5G 상용화를 맞아 AI, 클라우드 기술을 연계해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SK텔레콤은 20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5G 스마트팩토리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SK텔레콤은 5G와 첨단 ICT를 접목한 5종의 솔루션도 선보였다.

◇스마트팩토리 확산 위한 올인원 패키지 도입= SK텔레콤은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구축 단가를 낮추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들은 구축 비용과 복잡함 등으로 첨단 기술 도입에 제약이 있었다. SK텔레콤은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찾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추천한다.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설비 전반에 접목하도록 컨설팅도 진행한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중앙화·가상화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심플 엣지(Simple Edge)’도 추진한다.

네트워크·솔루션·단말 등 합친 ‘올인원 패키지’ 비용 부담 낮춰

다기능 협력 로봇·AI 머신비전 5G-첨단 ICT 접목 솔루션 시연

삼성전자 등 19개 기업·기관 참여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 출범

심플 엣지는 설비별로 복잡하게 구성된 솔루션을 중앙 서버로 가상화하고, 설비 끝단에는 명령을 수행하는 간단한 장비만 설치하는 구조다. 설비마다 센싱·분석·제어·동작을 위한 모든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구축 장비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날 SKT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주도로 19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5G스마트팩토리 얼라이언스(5G-SFA)’도 출범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제조에 대한 연구개발, 시험, 테스트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쉬, 지멘



SKT모델들이 5G 다기능 협력로봇 앞에서 5G모바일라우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스 등 각기 다른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활약 중인 기업들은 5G-SFA를 통해 분절된 기술·규격을 통일하고 범용 솔루션을 만든다.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 3년간 △생산성 30% 향상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감소 등의 성과를 냈다.

◇5G와 첨단 ICT 접목한 솔루션 5종 시연= 이날 SK텔레콤과 스마트제조혁신

터는 5G와 첨단 ICT를 접목한 솔루션 5종을 시연했다.

5G 다기능 협력 로봇은 6축 로봇팔, 3D 센싱 기능을 장착한 카트형 로봇이다. 이 로봇은 내부 공간에 스스로 제품을 적재하고 자율주행으로 이동했다. 로봇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다음 생산라인으로 옮기거나 불량품만 따로 모아 별도 공간으로 운송하는 데 주로 쓰인다. AI 서버와

연결된 5G는 다기능 협업 로봇에 명령을 내리고,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전달한다. SK텔레콤은 이 로봇을 내년 1분기 세플러 안산공장 에서 상용화할 계획이다.

5G 스마트 유연 생산 설비는 생산라인을 마치 블록 쌓듯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다. 모듈마다 부품 제조를 위한 로봇팔 등이 장착돼 있다. 생산, 검수, 포장 등을 담당하는 모듈 3~10개가 모여 하나의 제품 생산라인이 만들어진다.

5G 소형 자율주행 로봇(AMR)은 사람과 협업을 위한 소형 로봇이다. 하단에 달린 바퀴 4개로 좁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였다. 자율주행을 통해 장애물을 스스로 피했다.

AR스마트 글라스는 근로자가 쓰는 AR안경으로 설비, 부품 정보, 조립 매뉴얼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5G-AI머신비전은 국내 1호 5G 산업용 솔루션으로, 자동차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24장을 각각으로 찍어 5G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SK텔레콤은 5G-AI 머신비전이 근로자와 협업해 1인당 생산성을 최대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공동브랜드’로 소상공인 경쟁력 키운다

소상공인聯 ‘케이태그’ 론칭  
내년 초 100여개 업소 선정  
모범가게 인증... 홍보 지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브랜드 도입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동 브랜드는 우수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업체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해 인증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되며 지역연합회와 연합회 내 전문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내년 초 100여 개의 업소가 선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변경, 기타 노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높아진 데 대한 방책”이라며 “작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로 개척, 인지도 확대,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의 필요성이 98.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동 브랜드 ‘케이태그(K.tag)’는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KFME) 공동 브랜드 인증’ 사용권과 현판이 부여된다. 미디어, 지역 홍보 책자 등 홍보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상품을 올려 판촉 지원 등을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문적으로 디자인한 홍보물을 제공해 업소의 이미지 개선과 홍보 지원에 나선다. 박람회나 지역 축제, 지역 직거래 장터에서도 상

품 판촉을 지원하며 각종 소상공인대회에 참가할 때 가점도 부여한다. 법률, 세무, 노무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해 애로도 해소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작은 가게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혁신 성장의 새로운 길”이라며 “대기업, 중견기업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은 경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순히 공동 브랜드 현판을 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정진할 수 있게끔 3~6개월에 한 번씩 검증 작업도 할 것”이라며 “가혹하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극심과 책임감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객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자영업자들과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로의 노력이 합쳐져 자영업자들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코웨이, 말레이 100만 고객 계정 돌파

첫 렌탈 서비스 도입... ‘할랄 인증’ 등 현지화 전략 주요

코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고객 계정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07년 환경 가전 렌탈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에 최초 도입한 코웨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정수기, 렌탈 서비스 등 환경 가전의 한류를 선도해 이룬 쾌거”라고 설명했다.

2006년 설립된 코웨이 말레이시아 법인 고객 계정 수는 △2007년 4000 △2010년 5만2000 △2012년 12만4000 △2015년 29만3000 △2017년 68만을 기록해 연평균 약 70%의 가파른 성장세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100만 계정을 돌파했다.

코웨이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이례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이 손꼽힌다. △2007년 말레이시아 최초 렌탈 서비스 도입 △2010년 정수기 최초 할랄 인증 획득 △2015년 말레이시아 코디대폭 확충 △2017년 코웨이런 마라톤 대회 개최 △2018년 공항 내 PURE ZONE 운영 등의 전략은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웨이는 2007년 말레이시아 최초로 렌

탈 서비스 및 한국형 코디 서비스를 도입해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 판도를 바꾸며 현재 말레이시아 정수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코웨이는 정수기에 이어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추후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정수기 업계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HALAL)인증’을 획득해 이슬람교도 고객까지 시장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2010년 고객 계정 수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하는 등 가장 폭발적인 고객 계정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에는 ‘Live Pure’ 캠페인을 시작하며 정수기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공기청정기 시장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랜드마크인 쿠알라룸푸르 공항 주요 공간에 정수기 73대를 설치해 전 세계인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다. 이미 2011년부터는 공항 내 공기청정기 설치를 시작해 현재는 100대의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제도 홍보와 소상공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제1기 ‘노란우산공제 대학생 서포터즈’를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대학생 서포터즈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의 제도 특징과 운영 성과, 가입 및 대출이용, 복지 서비스, 고객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정보와 성공사례 전파, 우리 지역 소상공인 탐방취재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담당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소상공인 관련 다

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하게 되며 서포터즈에게 매월 활동수당과 활동비 지급, 중기중앙회 포상,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기회 등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금융·경제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문사항은 노란우산서비스부문의하면 된다.

정옥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본부장은 “서포터즈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中企·농어업기업 상생 모색”... 공영쇼핑 협력사 간담회

16개 우수 협력사 초청

공영쇼핑은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16개 우수 협력사 대표를 초청해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해 동안 우수 판매 성과를 거둔 협력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다. 또 우수 실적 노하우를 공유해 공영쇼핑이 중소기업 및 농어업기업 판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취지도 담았다.

이날 참여 협력사는 올해 분야별 판매 1위를 기록하거나 공영쇼핑 입점을 계기로

현격한 매출 신장을 거둔 곳들이다.

공산품 취급 협력사로는 △금성침대(금성침대) △우림컴퍼니(주방용품 파뮌) △네오김(의류 마담엘레강스) △다이아물산(의류 미넴옴) △은성월드(귀금속 오로젠펙) △기베스트(이미용품 나인테일즈 링클세럼) △에버홈(믹서기 에버홈 짬스틱) △라이온그룹코리아(제우스TV) 등이 선정됐다.

또 식품업체로는 △서일농원(서일농원 청국장) △제이피앤씨(샤인머스켓) △미트프라자(고기명가) △에스피엔지(임성근

전설의 육개장) △트루나스(자연조미료 자연한얼) △GN2(손질 통오징어) △엔에스티바이오(발효노니주스) △글로벌비엠에스(원방 침향원) 등에서 대표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협력사의 우수 상품 개발 노력에 힘입어 공영쇼핑이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었다”며 “협력사 의견 및 제안을 반영해 공영쇼핑이 우수 중소기업과 농어업기업의 확실한 판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CJ 오쇼핑(www.CJmail.com/080-000-8000)



프리미엄 아티스틱 골프웨어 | 장 미셸 바스키아 |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CJ오쇼핑 방송

  
 JEAN-MICHEL BASQUIAT™

# “소비자 지갑 열어라” 세일 이어진다



롯데 계열사 10곳 ‘뽕스 페스타’ 최대 70% 통 큰 할인 기획전 AK플라자·IFC몰·무신사 등 유통업계 연말 할인·경품대전



유통업계가 일제히 연말 할인에 나섰다. 백화점을 비롯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에 패션뷰티업체까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겨냥한 할인경쟁이 한창이다.

롯데는 백화점, 마트 등 10개 유통 계열사가 21일부터 31일까지 ‘롯데 뽕스 페스타 (THANKS FESTA)’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 뽕스 페스타 참여 계열사에서 기간 중 상품을 구매한 후 온라인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하면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 금 375g, 롯데상품권(600만원)을 지급하며, 2등 10명에게는 금 37.5g과 롯데상품권(60만 원)을 증정하는 등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여성, 남성, 잡화, 리빙 등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연말 선물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기획전을 연다.

롯데마트는 26일까지 홈파티용 스테이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스테이크 페스타를 진행하고 롯데마트 자체상표(PB) 상품 구매 시 엘포인트를 20배 적립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롯데슈퍼는 50대 생필품을 할인 판매하는 ‘썩스리데이’를, 롯데닷컴은 ‘아두 2018 톱 브랜드전’을 각각 준비했다. 롯데하이마트 하이마트 쇼핑몰(온라인몰)에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AK플라자는 25일까지 구로점, 수원점,

분당점, 평택점, 원주점 등 전 점에서 성탄절 선물 준비 고객을 위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Send Your Heart)’를 테마로 할인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매장별로 다른 콘셉트의 할인전을 여는 것이 특징이다. 구로점은 27일까지 ‘키즈 선물 대전’을, 수원점은 23일까지 ‘프리미엄 모피 대전’을 각각 전개한다. 분당점은 25일까지 ‘해외명품 기프트 대전’을 준비했고 평택점은 25일까지 ‘홀리데이 주얼리 기획전’을 선보인다.

홈플러스 스페셜은 고객 500만 돌파를 기념해 내년 1월 16일까지 4주간 전국 15개 점포에서 인기상품 940여 종을 오픈 행사 수준으로 선보이는 ‘스페셜 감사제’를 진행한다. 스페셜 감사제에서는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을 100g에 990원에 제공하고 한우 암소도 40% 할인 판매한다. 홈플러스 스페셜은 6월 1호점 대구점을 오픈한 후 열흘에 하나꼴로 점포를 늘리며 20일 16호점 시흥점을 개점했다.

여의도 복합쇼핑문화공간 IFC몰도 ‘윈

터세일’을 시작했다. 1월 말까지 이어지는 윈터세일에서는 IFC몰 입점 브랜드를 최대 7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앤더스토리즈, 자라, 마시모두미, 망고 등은 반값에, 아디다스와 언더아머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패션 뷰티 기업들도 시즌오프 할인에 돌입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에잇세컨즈는 다음 달 31일까지 F/W 시즌 인기 아이템을 최대 60% 할인기에 선보이는 ‘슈퍼세일’을 진행한다. 9월 국내 진출한 패션 브랜드 지유(GU)도 25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에 나선다.

편집숍 무신사는 28일까지 아디다스, 커비넷 등 600여 개 입점 브랜드의 2만6000여 개 상품을 최대 96% 할인 판매하는 ‘하반기 결산 세일’을 진행 중이다.

미샤는 22일까지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2000원, 3만 원 이상 1만 원, 5만 원 이상 2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 주는 ‘더더 더’ 이벤트를 연다. 유희현 기자 yhh1209@

## GS리테일도 ‘자동차 공유경제’ 사업

GSPark24 지분 50% 인수 에너지·심플리룩 물류 거점

유통업계가 자동차 관련 공유 경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주차장이 고객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공간인 만큼 전기 자동차 충전소, 공유 자동차 픽업, 공유 주차장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미래의 쇼핑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차장이 온라인 유통 사업의 물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주차장 운영 업체인 GSPark24의 지분 50%를 165억 원에 인수했다고 20일 밝혔다. GSPark24는 GS에너지와 일본 Park24의 합작 회사로 주차장 운영 사업을 펼치고 있다. GS리테일은 현재 보유 중인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더해 미래 성장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S리테일은 GSPark24에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등 새로운 자동차 에너지 충전 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유통의 허브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GS리테일은 GSPark24에 새로운 장비와 첨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장 이용 관련 모바일 앱을 통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은 또 온라인 몰인 ‘GSfresh’

와 밀키트 배송 사업인 ‘심플리룩’ 등의 배송을 위한 최종 물류 거점으로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무인 편의점 콘셉트의 스마트 GS25 점포를 내고, 무인 락커와 편의점 택배 시스템인 포스트 박스(Postbox)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춘호 GS리테일 전략부장(전무)은 “당사가 보유한 입지 개발 및 운영 관련 핵심 역량을 활용해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GS fresh 등 기존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최종 물류 거점 활용, 무인 편의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시너지 달성도 적극 모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에 앞서 이마트도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마트는 하이패스 등 교통관리 시스템 업계 1위 기업인 ‘에스트래픽’과 손잡고 초고속 전기차 충전, 자동차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존’을 선보이기로 했다.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이마트 전 지점에 총 2200면(1면=차량 1대 주차공간)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더불어 이마트는 자동차 대여 업체인 ‘딜카’, ‘소카’와 협업해 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거점을 올 연말까지 64개 점, 내년까지 총 100개 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차 솔루션 업체인 ‘아이파킹’과 손잡고 이마트 주차장을 무인 입·출차가 가능한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미션 기자 only@

## 센스甲 연말 선물

가족 와인 케이스·맞춤 네온사인 펫 청소용품 등 이색 아이템 인기

11번가에 따르면 1년 중 모바일 쿠폰 거래가 가장 많은 달은 매년 12월이었다. 연중 최대 쇼핑 행사가 있는 11월, 휴가 시즌인 8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가정의 달 5월을 제치고 12월이 모바일 쿠폰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이유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 12월 가장 잘 팔리는 모바일 쿠폰은 커피와 케이크, 영화예매권, 모바일 상품권 등이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연시, 올해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이색 아이템을 소개한다.

◇파티와 어울리는 선물 = 크리스마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와인. 와인의 품격을 한껏 올려줄 가족 와인 케이스를 선물하면 어떨까.

프랑스 오리진 패션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고품질 천연가죽 소재를 사용한 리빙 제품을 선보였다. 그중 와인 케이스는 정교한 가공 과정을 거친 오일 베지터블 소가죽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부드러운 스웨이드 안감이 와인병을 부드럽게 감싸준다. 색상은 검은색, 갈색 두 가지다.

개성 넘치는 파티를 원한다면 화려한

네온사인을 선물하면 좋다. 셀프 네온사인 브랜드 스토어 ‘스위치네온’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문구로 조명을 디자인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네온을 완성한다. 1:1 제작 방식으로 탄생하는 제품인 만큼 고객이 직접 문구와 글씨체, 네온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네온사인을 벽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독특한 카페나

방식의 시트 타입과 진드기가 있을 만한 모든 곳에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대상물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표면이 축축해질 때까지 뿌린 후 3시간 후 환기시키고 진공청소기로 밀면 된다.

◇건강도 챙겨주세요 = 중장년층을 위한 선물로는 24시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용 멀티혈압 측정 밴드’를 추천한다. 잠깨어에서 선보인 ‘H2-BP’는 휴대성을 높인 웨어러블 의료기기

로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형태다. 손에 힘을 빼고 혈압계를 가슴 중앙에 맞춘 뒤 혈압을 측정하면 된다. ‘H2-BP’는 압박을 통해 혈압을 재는 ‘오실로메트릭(NIBP)’ 방식을 적용했다. 버튼을 누르면 밴드가 부풀어 손목을 압박하고,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측정해 정확하게 혈압을 잴 수 있다.

백미션 기자 only@

이 손’은 5만 번 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 친환경 톨 클리너로, 달팽이 점액의 특징을 연구 개발해 기존 테이프 클리너의 단점인 쓰고 찢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했다.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말리기만 하면 된다.

진드기 살충제 ‘진드기썩’은 침대와 소파 등에 깔아두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시트 타입과 진드기가 있을 만한 모든 곳에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스프레이형 제품은 대상물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표면이 축축해질 때까지 뿌린 후 3시간 후 환기시키고 진공청소기로 밀면 된다.

◇건강도 챙겨주세요 = 중장년층을 위한 선물로는 24시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초소용 멀티혈압 측정 밴드’를 추천한다. 잠깨어에서 선보인 ‘H2-BP’는 휴대성을 높인 웨어러블 의료기기



아모레퍼시픽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 고마운 분께 전하는 ‘선물의 품격’

유통업계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콘셉트의 한정판 홀리데이 제품을 선보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역시 소장 가치를 높인 홀리데이 컬렉션을 내놨다.

설화수는 오색 불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오색향연 홀리데이 컬렉션’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한국의 다섯 가지 전통 색감과 다채로운 문양으로 밤하늘의 불꽃을 재해석해 베스트셀러 패키지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윤조에센스 홀리데이 세트’는 오리엔탈 허브향 베이스의 스테디셀러 ‘윤조에센스’ 본품과 함께 본보기 제품 3종으로 이뤄졌다. 설화수의 대표 쿼션 파운데이션인 ‘퍼펙팅 쿼션’ 역시 화려한 오색 불꽃 디자인이 적용돼 연말 감사 선물로 제격이다.

향수 브랜드인 아닉구맷은 기하학적인 패턴과 감각적인 컬러가 어우러진 디자인의 2018 홀리데이 캔들을 선보였다. 아닉구맷 하우스의 상징인 G마크와 나비, 향수병 등의 패턴과 함께 초승달, 별 패턴이 더해졌다. 2018 홀리데이 컬렉션의 ‘캔들 트리오 세트’는 우디 베이스의 시트러스 향이 조화를 이루는 ‘윈

포레 도르 캔들’, 매혹적인 불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부아 서더 캔들’, 산뜻함과 평온함이 느껴지는 시트러스 향의 ‘엠티에 드 아드리앙 캔들’ 3종으로 구성됐다.

마몽드는 정원에 불을 켜듯 화려하고 따뜻한 느낌이 가득한 ‘글로밍 가든’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다. ‘홀리데이 플라워 센티드 핸드크림’은 풍부하게 퍼지는 꽃 향기와 보습을 선사하는 로즈, 동백, 목련으로 구성됐다.

라네스가 출시한 ‘마이 네온사인’ 컬렉션의 ‘멀티 팔레트’는 연말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로맨틱 로즈 톤의 아이 룩부터 브라운 스모키 룩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매트, 시머, 글리터 등 다양한 질감으로 구성돼 있어 베이스부터 포인트까지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은은한 오로라 광채로 사랑스러운 불을 연출해주는 핑크빛 블러셔와 새도나 블러셔 위에 사용해 오로라 글로를 더할 수 있는 멀티 하이라이터가 포함돼 있다.

백미션 기자 only@



왼쪽부터 루이까또즈 가족 와인 케이스, 스위치네온 네온사인, 잠깨어 ‘H2-BP’.

<샤니·SPC PACK·SPC>

# 빵 생산·포장·판매까지... 많게는 100% 내부거래

##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 SPC그룹

오너가 90% 소유한 파리크라상 SPC삼립 등 50개사 연결·지배

샤니·호남샤니 내부거래 100% 공정위·국세청 을 두 차례 조사

#### SPC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현황

※ 파리크라상 지분: 허영인(63.5%), 허진수(20.2%), 허희수(12.7%)  
(단위: 억 원, 2017년 기준)

사니 (허영인 외 69.86%, 파리크라상 9.8%)	호남샤니 (허영인 42.41%, 샤니 38.40%)	(주)SPC (파리크라상 100%)
매출 2071	매출 635	매출 665
내부거래 2063	내부거래 635	내부거래 613
영업이익 12	영업이익 11	영업이익 18
내부거래 비율 99.65%	내부거래 비율 99.99%	내부거래 비율 92.21%
설목장 (파리크라상 92%)	SPC PACK (파리크라상 50%, 허영인 30%, 샤니 20%)	
매출 67	매출 581	
내부거래 63	내부거래 288	
영업이익 -11	영업이익 15	
내부거래 비율 93.97%	내부거래 비율 49.57%	



파리크라상으로 유명한 SPC그룹이 빵 제조부터 제품 포장, 영업점 운영까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비중도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SPC그룹엔 상장사 SPC삼립을 비롯해 25개의 비상장사와 24개의 해외법인 등 총 50개의 계열사가 있다. 이 중 주력 계열사이자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을 중심으로 오너가의 계열사 지배구조가 연결돼 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말 기준 허영인

SPC그룹 회장(63.5%)과 장남 허진수 부사장(20.2%),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12.7%) 등 오너가의 지분만 90%가 넘는다. 오너가는 개인 지분과 파리크라상 지분을 통해 SPC삼립, 샤니, 설목장, SPC PACK 등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샤니는 SPC그룹 내에서 제빵과 제과업을 담당하는 대표 계열사다. 허영인 회장 외 특수관계자 지분 69.86%와 파리크라상 9.8% 등으로 구성된 샤니의 최근 4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00%에 달한다.

광주광역시 하남공업단지에서 본사를 둔

호남샤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샤니와 마찬가지로 빵,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호남샤니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99.99%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99%대를 이어오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2012년 설립된 설목장은 파리크라상 지분이 92%로 오너가의 간접지배 속에 있다. 우유 등 축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이 기업 역시 2015년 90.84%부터 지난해 93.97%까지 꾸준히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적자 속에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67억 원, 영업손실은 11억 원으로 집계됐다.

SPC그룹의 내부거래는 상품 제조는 물론 제품 포장까지 다방면에서 감지된다. 합성수지 제조업 및 그라비아 인쇄업을 담당하는 SPC PACK는 SPC 계열사들의 제빵류 포장부터 냉동·냉장·스낵 등 다양한 포장 공정을 맡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앞서 언급한 곳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곳 역시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파리크라상(50%), 허영인 회장(30%), 샤니(20%) 등의 지분으로 이뤄진 SPC PACK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49.57%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30.47% 줄어든 약 15억

원을 기록해 최근 4년 새 처음 감소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영업점으로 향하게 된다. SPC 주식회사는 1997년 설립 때 부동산 임대업과 제과점 운영업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90%대를 유지하던 SPC 주식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91.84%, 지난해 92.21%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292억 원으로, 계열사 중 비중(47.68%)이 가장 높았다.

한편 SPC그룹은 4월과 7월 각각 공정위와 국세청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내부거래 등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최근 SPC삼립 지분 이동 과정에서 허 부사장의 지분이 형을 추월하면서 파리크라상에 이어 2대주주로 올라 경영 복귀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개인의 매매이기 때문에 취득을 언제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경영 참여와 관련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코스닥 바이오株 쓸어담은 外人

이달만 2091억 '나홀로' 순매수 바이로메드 등 상위 5종 바이오

외국인의 투심이 바이오주에 집중되고 있다. 12월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나홀로 순매수했는데,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091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22억 원, 1535억 원을 순매도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바이로메드, 에이치엘비, 신라젠, 셀트리온헬스케어, 메디톡스 등 모두 바이오주라는 점이다. 이어 파라다이스, 스튜디오드래곤, 에스엠, 펄

어비스, SK머티리얼즈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과는 확실히 상반된 흐름이다. 11월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 1~3위는 신라젠, SKC코오롱PI, 셀트리온제약이 차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이다.

그러나 10일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바이오섹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낸 점도 바이오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했다. 19일 정부는 코스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 제약업종지수는 214.78포인트

(2.51%) 올랐다.

바이오산업의 내년 전망도 긍정적이다. 임동라 한양증권 연구원은 "사회 구조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후호적인 환경이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는 후기 임상 진입 또는 종료, 제품 승인을 앞둔 국내 파이프라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말 주가는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이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검찰 압수수색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금감원 감리 착수 등 산업 내 부정적 이슈가 상존한다"며 "연말까지 주가 흐름은 각종 이슈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h@

##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제 임상2b상 개시

### 2020년 하반기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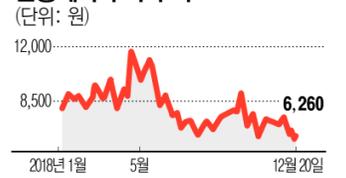
신풍제약은 이달 말 뇌졸중 신약물질 'SP-8203'에 대한 임상시험 2b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내 환자모집을 시작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2020년 하반기에 2b상 결과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일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P-8203에 대한 임상2b상을 승인받았다"며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환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약 160명 이상의 환자를 모집해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SP-8203을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로 연구 중이다. 허혈성 뇌졸중은 일명 '뇌경색'으로, 뇌 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받은 뇌졸중 치료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액티라제가 유일하다. 다만

### 신풍제약 주가 추이



액티라제는 발병 3시간 내 투약해야 해 치료 유효시간이 짧은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임상2a상에서 뇌졸중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표준치료 요법과 SP-8203 병용 시 유효성 개선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며 "2b상에서는 투여군 규모를 늘려 SP-8203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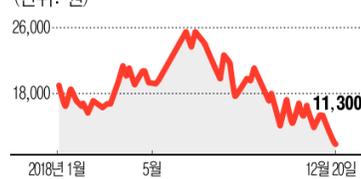
이어 "내부 계획으로는 내년 말 임상2b상을 끝내고, 6개월 정도의 데이터 검토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2b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기술이전, 추가 임상시험 진행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 반도체 소재 '실리콘파츠' 전문... "4차 산업혁명 수혜"

### 기업탐방

#### 하나머티리얼즈

#### 하나머티리얼즈 주가 추이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업체 하나머티리얼즈가 대구경 살리콘 잉곳 전용 생산라인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4차 산업 발달과 함께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고 집적화되면서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 파츠(Si Parts)의 소모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파츠는 하나머티리얼즈의 대표 제품이다. 선제적으로 캐파(생산능력)를 늘려 대구경 살리콘 잉곳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

앞서 하나머티리얼즈는 11월 대구경 살리콘 잉곳 생산을 위한 신규 생산라인을 도입했다. 12월에는 양산에 착수했고 이달 중순 제품 출하식도 개최했다. 이로써 회사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미래 잠재 수요에 대비한 생산 경쟁력을 확보했다.

### 실리콘파츠 국내 점유율 1위 생산라인, 두 배로 증설 계획

주력 제품인 실리콘 파츠 매출이 늘면서 실적도 성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 613억 원이었던 매출은 작년 102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도 1219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 실적을 뛰어넘은 상태다.

최근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이자 2대 주주인 일본 도쿄일렉트론(TEL)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점도 긍정적이다. 회사는 제3차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한화

약 49억 원을 유지했다. 조달한 자금은 신사업인 실리콘 카바이드(SiC) 양산 장비 확보에 투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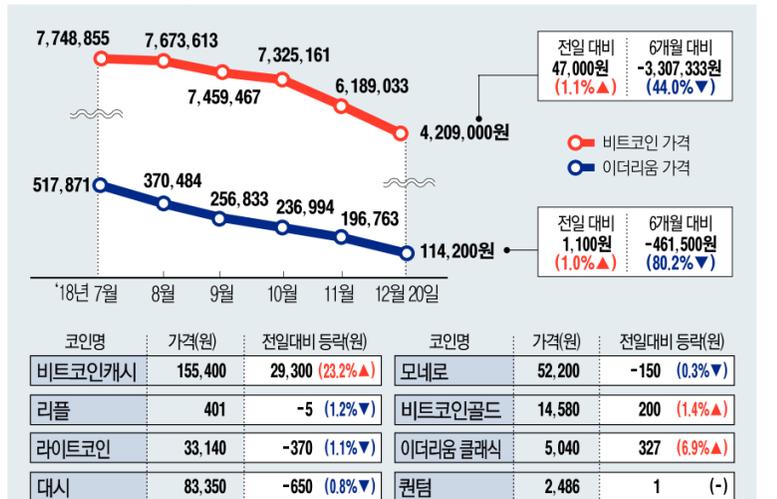
올해 3분기 말 기준 내수와 수출 비중은 77%, 23%다. 하나머티리얼즈 부품의 최종 납품처가 국내일 경우 내수로 분류돼 내수 비중이 높아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실제 주요 납품처는 TEL을 비롯해 세메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글로벌 장비회사다.

하나머티리얼즈 관계자는 20일 "5G,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전공정 장비 시장의 확대로 소모성 부품인 파츠 수요도 늘고 있다"며 "전방시장의 성장으로 각 공정의 핵심 소모품인 자사 제품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07년 설립된 하나머티리얼즈는 대구경 살리콘 잉곳 일관 생산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차별화된 단결정 잉곳 그로잉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실리콘 파츠 시장점유율(M/S)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8년 12월 20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55,400	29,300 (23.2%▲)	모네로	52,200	-150 (0.3%▼)
리플	401	-5 (1.2%▼)	비트코인골드	14,580	200 (1.4%▲)
라이트코인	33,140	-370 (1.1%▼)	이더리움 클래식	5,040	327 (6.9%▲)
대시	83,350	-650 (0.8%▼)	퀀텀	2,486	1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불확실성 시대’ 자본시장 질적 성장 견인

**2018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수상 기업**

상명	훈격	수상기업
종합대상	금융감독원장상	한국투자증권
고객만족부문 우수상	한국거래소이사장상	NH투자증권
자산관리부문 우수상		미래에셋대우
금융혁신부문 우수상		신한금융투자
리서치부문 우수상		하이투자증권
대체투자부문 우수상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	하나금융투자
MTS부문 우수상		대신증권
DCM부문 우수상		KB증권
연금펀드부문 우수상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투자부문 우수상	이투데이 대표이사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고객자산운용부문 우수상		교보증권
패시브펀드부문 우수상		삼성자산운용

## 올해로 8회째...금투업계 발전 이끈 마켓리더 재조명 초대형 IB 1호 한국투자증권 ‘종합대상 금감독장상’ 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투 등 11곳 우수상

올해로 8회째 맞이한 ‘이투데이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시상식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은 한국 금융투자 업계의 발전을 이끈 마켓리더의 공적을 재조명하고 부각한다는 취지에서 2011년 제정됐다.

올해 금융투자 업계는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변수로 국내외 사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부각되면서 금융투자 업계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IB) 2호가 배출되면서 업계의 사업 영역 확장성을 입증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켓리더 대상 심사위원회는 기업별 실적과 사업 내용,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올 한 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견인한 마켓리더들을 총 12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1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이투데이 사옥에서 개최된 심사위원회에는 김군호(에프앤가이드 대표)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영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본부 전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재용 이투데이 자본시장 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장상인 종합대상에는 올해 발행어음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한국투자증권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IB 1호로 선정,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국내 발행어음 시장을 개척했다. 10월 말 기준 발행어음 판매액은 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베트남법인(KISV)은 현지 진출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파생상품(선물)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군호 심사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전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될 만큼, 압도적인 대상 수상 기업”이라면서 “진취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상에는 NH투자증권(고객만족 부문), 미래에셋대우(자산관리 부문), 신한금융투자(금융혁신 부문), 하이투자증권(리서치 부문)이 각각 수상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수익률로 영업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는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아 고객만족 부문 우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점포를 통해 고객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IB와 연계한 독창적인 상품을 리테일에 공급하는 등 고객 자산관리에 관한 노력을 인정 받아 자산관리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사내 인재 육성을 위해 자기주도적 디지털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금융투자 업계 최초로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0.01주)로 거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구매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해 금융혁신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은 하나금융투자(대체투자 부문), 대신증권(MTS 부문), KB증권(DCM 부문), 미래에셋자산운용(연금펀드 부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나금융투자는 북미권에만 집중됐던 해외투자에서 벗어나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중동지역 PPP사업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대학캠퍼스 투자 건을 성공시키는 등 투자상품 다양화에도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아 리서치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국내주식투자 부문), 교보증권(고객자산운용 부문), 삼성자산운용(패시브펀드 부문) 등이 수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종합대상 금융감독원장상

## 동남아 등 해외시장 확대 주력...아시아 대표 ‘글로벌 IB’로 도약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유상호 부회장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주력 자회사로, 기업금융 및 자산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IB-AM’ 모델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업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3분기 누적기준 당기순이익 4109억 원을 기록, 연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연환산해 산출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2.3%로 국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초대형IB 중 1위를 차지했다.

회사 측은 순영업수익 내 부문별 수익원 비중이 위탁매매 22.4%, 자산관리 13.7%, 투자은행 22.4%,

자산운용 21.6%로 위탁수수료에 편중되지 않아 안정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초대형IB 중 처음으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수시형 발행어음과 약정형 발행어음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9월에는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립형 발행어음 상품인 ‘적립식 퍼스트 발행어음’을 선보였다. 인기몰이에 성공해 10월 말 기준 발행어음 판매액은 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약정형(거치식) 기준으로 금리가 최소 2%대인 외화표시 발행어음도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IB로 도약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10월에는 아시아 금융시

장 거점 육성의 일환으로 홍콩 현지법인에 4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홍콩 현지법인은 회사 고유 계정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롭 트레이딩을 시작한 후 해외 대체투자 상품 및 IB 딜 소싱 등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2월 3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베트남법인(KISV)은 현지 진출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7월 출범한 인도네시아법인(KISI)은 5년 내 현지 최상위 증권사 진입을 목표로 한국형 온라인 주식매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희 기자 ljh@

한국거래소이사장상 고객만족부문

## 수익률로 직원 평가... '고객중심' 자산관리



정영채 대표이사

NH투자증권이 '고객중심경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고객수익률로 영업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금융 소비자 보호 계량지표를 개인 평가지표에 반영해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는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외부기관에 의한 미스터리쇼핑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를 해당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초대형 복합점포'를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차별화도 눈에 띈다. NH투자증권은 고객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위한 프리미어블루센터뿐 아니라 증권·은행·보험 간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복합점포 'NH금융플러스금융센터'를 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60여 명의 프라이빗뱅크(PB)뿐 아니라 세무, 부동산, 법률자문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원스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세시대 아카데미'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NH투자증권의 100세시대연구소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은퇴 이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 '100세시대 인생대학'과 공개강좌인 '100세시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0세시대 종합정보 매거진 'THE100',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등을 발간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고객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한국거래소이사장상 자산관리부문

## 고객 자산가 대상 'WM' 생활 맞춤 서비스



최현만 수석부회장

미래에셋대우는 상권과 지역 특성,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점포의 운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상품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이벤트보다는 고객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중심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VVIP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강남 2개(강남파이낸스, 갤러리아WM)와 강북에 1개(WM센터원)의 'WM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객 자산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점포는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일반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영업점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점포 운영 효율화 작업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점포 운영 효율화는 영업점 대형화 및 통합 운영을 통해 영업력 강화와 경

영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는 비대면 서비스 지원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찍부터 해외시장에 진출해 타이틀리스트 같은 해외 유명 기업 및 호텔, 오피스빌딩 등을 인수하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길을 걷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IB와 연계한 독창적인 상품을 리테일에 공급하고, 고객 동맹과 글로벌자산 배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해외 우량자산을 지속해서 고객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이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이투데이 미디어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가 공동 후원했다.

오승현 기자 story@

한국거래소이사장상 금융혁신부문

##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혁명 상품 개발



김형진 사장

신한금융투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는 핀테크 업체 토스와 제휴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우선 업계 최초로 토스 앱에서 간편하게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마트폰의 토스 앱에서 원하는 종목 선택 하면 해외주식의 원화 환산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환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매매가 가능한 서비스다.

토스 앱에서 신한금융투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뒤 간편한 인증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입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에 투자하는 '디지털 전용

ELS'를 판매하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 같은 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 올해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IDC Digital Transformation Award 2018'에서 옴니 경험 이노베이터(Omni Experience innovator) 부문을 수상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수상이 '아만다의 글로벌투자 여행 서비스'가 쉽고 빠른 글로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해 그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거래소이사장상 리서치부문

## 'FO 섹터' 신설, 미래 기술·유망 종목 발굴



김경규 대표이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시니어와 주니어 애널리스트의 조화 속에서 다양한 섹터 애널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뢰도 높은 보고서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6월 취임한 고태봉 센터장과 함께 17명의 기업 분석팀, 7명의 투자전략팀 애널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경력 10년 이상의 시니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퀀트, 전략 등 다양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함께 'Data, Model, Insight'를 모토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Future & Over The Counter (FO)' 섹터를 신설해 미래 기술 및 관련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기존 리서치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정제된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해당 섹터는 11월에 첫 보고서로

'승차 공유 서비스' 내용을 다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FO섹터는 향후 다양한 미래 기술 소개는 물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공개(IPO) 이전 단계의 기업을 발굴해 투자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분석팀은 시니어가 주도하고 있는 IT·산업재 섹터의 전통을 이어, 화학, 제약 등 하반기 데뷔한 주니어 애널리스트들 역시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시장의 호평을 받았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 대체투자부문

## 美 이어 유럽 투자 확대... 세일가스도 베팅



이진국 사장

하나금융투자는 북미권에 치중됐던 대체투자 투자처를 확대하고 투자상품 다변화를 통해 국내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우선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돋보인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투자자들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권에 치중됐으나 이 같은 관행을 뒤엎고 유럽으로 투자 반경을 넓혔다. 영국고속철, 런던순환외곽도로, 아랍에미리트(UAE) 대학 캠퍼스, 네덜란드 폐기물 시설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또한 투자상품의 다변화에 성공했다. 기존 해외 대체투자가 실물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하나금융투자는 선순위, 메자닌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각광받는 세일가스 미드스트림 자산 대출 투자에 성공했다. 우량 항공사 크레딧을 바탕으로 한 항공기 금융리스 건도 주선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앞으로도 이 같은 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관련 제약과 수요를 충족하는 상품을 공급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에서 초우량 국가에 한정됐던 투자를 스페인 등 남유럽으로 확대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투자자 리스크 성과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해 맞춤형 구조화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 MTS부문

## 사용자 중심으로 모바일 트레이딩 개선



나재철 사장

대신증권은 자체 개발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크레온'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고객과의 접점이 온라인,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고객들이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발맞춰 대신증권은 고객중심주의를 표방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MTS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크레온은 대신증권의 뛰어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주식 거래에 최적화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 우수성을 인정받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이보스'의 알파 기능을 모바일 환경으로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모바일 특화 시스템으로서의 장점도 눈에 띈다. 가령 크레온은 고객의 주문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 버튼 크기까지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 또 가

로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 경험(UX)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크레온의 궁극적 목표는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 없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고객을 타깃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우수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식 청약,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해 고객 스스로 종합 자산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부터 펀드, 주기연계증권(EL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 상품 매매는 물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약정 등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 DCM부문

## 회사채 등 채권 발행주관 점유율 21% '1위'



전병조 사장

KB증권은 올해도 견고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직접금융시장을 선도했다. 특히 DCM부문에서 AAA등급부터 BBB등급까지 다양한 등급의 채권을 주관·인수하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하는 한편, 발행회사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KB금융의 시장 지배력을 견고히 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블룸버그 집계 실적으로 11월 20일 기준 KB증권 국내 전체 채권 주관 점유율은 20.9%를 기록, 연말 기준 리그테이블에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다.

또 회사채 주관사 실적 점유율은 25%에 육박해 전체시장의 4분의 1에 대한 발행주관에 성공함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B증권은 합병 후 조직 안정화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며, DCM시장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

사(캠코) 보증 공·사모 담보부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이를 활용해 두산그룹과 이랜드그룹 계열사 자금조달 지원, 비금융사 최초 현대일렉트릭엔 에너지시스템 변동금리부채권 공보 발행 등에도 나섰다. 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여전채 등 채권 전반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등 DCM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최고로 발휘했으며 기업어음(CP)시장 공략으로 기업어음 인수 규모 1위를 차지, 장·단기 기업자금조달 플랫폼을 구축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국금융투자협회장상 연금펀드부문

## 300개 넘는 연금 상품 설정액 1위 운용사



서유석 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펀드 시장을 선도하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펀드 설정액 1위 운용사다. 전체 연금시장 점유율은 23% 수준이다. 전 세계 우량 자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에게 글로벌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규모는 각각 3조 원, 3조1000억 원 수준이며 전체 연금펀드 수탁액은 올해에만 약 1조 원 증가했다. 이는 300개가 넘는 다양한 개인 및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해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투자자 수요에 부합한 덕분이다. 올해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라인업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형 TDF, 다양한 수익전략에 분산투자하는 전략배분형 TDF와 더불어 인출 없이 퇴직연금으로 100% 운용이 가능한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을 출시했다.

운용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마케팅본부를 각각 신설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 외국 운용

사 위탁이 아닌 미래에셋의 12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 컨슈머연금전환형 펀드는 출시 7년 만에 누적수익률 100%에 육박하는 성과(제로인 11월 20일 기준, 99.44%)를 기록했다.

2004년 금융권 최초로 투자교육연구소를 설립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에도 앞장서 왔다. 현재 '미래에셋은퇴연구소'로 출범해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퇴와 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이투데이 대표이사상 국내주식투자부문

## 업계 최대 리서치 인력...안정적 수익



민정기 사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주식전략본부 및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변동 장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전략본부 재정비와 함께 운용본부도 주식투자운용본부로 통합하고 외부 매니저 충원을 통해 주식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다.

현재 주식투자운용본부 내 주식리서치팀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출신의 리서치 팀장을 포함해 리서치 전담인력 7명, 리서치 겸임 운용역 3명 등 총 10명으로 자산운용업계 내 최대 리서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 최대은행 BNP파리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점차 글로벌화되는 리서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탄탄한 리서치 기반은 펀드 운용 성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2년간 부진했던 주식형 펀드 성과가 201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선, 최근까지 우수한 펀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대표 펀드 중의 하나인 엄마사랑 어린이 펀드는 일반 주식형펀드 기준, 1년 상위 36%, 2년 상위 14%, 3년 상위 13%의 꾸준하고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좋은아침코리아펀드는 상위 18%, 아름다운SRI펀드 29%, 코리아가치성장펀드 26%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투데이 대표이사상 고객자산운용부문

## 6년 새 신탁자산 36배 규모 성장



김해선 대표이사

교보증권은 '고객의 니즈를 알고 고객에게 신뢰를 받자'는 고객중심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사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리테일 수수료에 의존하는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 자산가, 기관 대상 고객자산 운용·영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신탁 단일부서에서 2012년 2본부 4부서로 조직을 개편했다. 고객자산운용본부 산하 2개 부서인 랩운용부, 신탁운용부를 사모펀드운용본부 산하 2개 부서인 사모펀드운용부, PSM(Planning Structuring Marketing)부로 확장해 고객의 수요에 맞는 자산관리 영업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소형사 한계를 넘어 단기간에 업계 수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고객 중심 경영 덕이다. 실제 운용담당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적의 상품 등을 제시한

다. 그 결과 2012년 신탁자산 규모가 1조 원에서 현재 35조5000억 원 수준으로 36배 성장했다.

신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채권형 헤지펀드를 출시했다. 현재 판매규모는 3조3000억 원을 돌파해 인하우스 헤지펀드 시장에 진출한 증권사 중 1위다. 이어 통화 간 상대가치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얻는 운용 전략 상품인 '교보증권 Royal-class 달러·원 채권 프리미엄 전문사모투자신탁' 등을 출시해 인기몰이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정희 기자 ljh@

이투데이 대표이사상 패시브펀드부문

## 배당수익률 평균 3.08% 업계 최고



전명욱 대표이사

삼성자산운용이 배당펀드 운용 원칙과 철학을 지켜 국내 최고 펀드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 배당주장기 펀드의 배당수익률은 올해 8월 말 기준 3.08%로 업계 평균 2.25%보다 월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펀드 투자목적에 맞게 고배당주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투자한 결과다. 2005년 출시된 이 펀드는 업계 대표 배당주 펀드다. 배당성장주와 고배당주에 투자해 자본이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토탈리턴(Total Return)'을 극대화한 펀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대대적으로 재정비에 나선 펀드는 벤치마크를 KRX고배당으로 변경하고 고배당주를 발굴해 집중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배당수익률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을 조사하고 기업 탐방과 심층적인 산업 분석 등을 통해 성장성과 배당 여력이 높은 기업을 철저히 선별했

다. 또 배당수익률과 주가 상승 여력을 고려해 펀드 전체 목표 수익률이 3% 이상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배당수익률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을 재조정하는 리밸런싱을 실행했다.

회사 측은 "경영권 상속 등의 이벤트와 맞물려 배당 성향이 상향될 가능성 있는 기업 중 잠재적 배당성장주를 선별해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출퇴근재해 부담없이 산재신청하세요!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2018. 1. 1.부터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모두에게 WIN-WIN!

### 01 노동자에게는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병원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 직장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병증관리, 재요양 등 사후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02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 01 산재보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애·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2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03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산재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보험사 포함)와 합의시 산재보험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고객 상담 및 안내 1588-0075 www.kcomwel.or.kr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상여행렬이 무대 쪽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라돈침대’ 줄소송 제동 건 판사

법원 “원고마다 병명 달라  
제조물 책임법 적용 의문”  
소비자들 첫 재판부터 난관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매트리스로 인해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비자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장기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대진침대와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라돈을 통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마다 병명이 달라 구체적 손해 특징이 어렵고, 제조물책임법을 청구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다양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

다. 법정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이 공개한 원고 명단에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을 비롯해 피부염, 기관지염, 패혈증, 천식, 자궁폴립 등 다양한 병명이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1734명에 대해서는 질병이 발병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해 제조물책임법의 논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날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었다”는 취지로 재차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 역시 “원고 측에서 유해성 인과관계를 입증해도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윤환슬 기자 charmy@

## 국회 앞 메운 10만 택시기사 “카풀 서비스 금지” 한목소리

하루 운행 중단 시민들 불평

전국 택시기사들이 차량 운행을 멈추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철회와 카풀을 금지하는 여객법 통과를 촉구했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전 택시 차량을 동원해 끝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10월 광화문에서 1차 집회, 11월 국회 앞에서 2차 집회에 이은 세

번째다. 앞서 1차 집회에는 7만 명, 2차 집회에는 4만 명이 모였으며 이날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개인·법인 택시는 이날 하루 운행 중단을 하고 여의도로 모였다. 이로 인해 국회 일대 도로는 택시와 버스 등으로 인해 차량 정체를 겪었다.

4개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카풀 앱 등 불법 자가용 유사운송행위는 택시 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자가용 불법 유사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철저한 단속과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혼인외 출생’ 표기 없애고 ‘사실혼’도 가족 범위 포함

여가부 ‘내년 중점 추진과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차별적인 법·제도 인식 개선  
상담전화 통합 ‘가족콜’ 구축  
아이돌봄 대상·시간 확대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포괄적인 가족 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과 관련한 차별적인 법·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동거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기반은 통계청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해 아동·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련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문 상담정보 체계인 가정 ‘가족콜’도 내년 8월 구축한다.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으로 나뉘어 있던 상담전화도 ‘가족콜’로 통합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

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720시간)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김소희 기자 ksh@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정기구독하세요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구독료 납부 방법 | 아래 금융기관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신청 업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금주 ㈜이투데이이피엔씨 국민은행 400437-01-019201,  
기업은행 964-042175-01-013, 신한은행 140-009-242484, 외환은행 630-007712-189,  
우리은행 1005-201-922923, 하나은행 216-910003-03804

**브라보 짹짹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짹짹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짹짹 TV)

# “내년 경매건수 늘고 응찰자 줄 것”

지지옥션, 낙찰률·낙찰가율 동반 하락 전망

내년 법원 경매시장에서 대출 규제에 의해 응찰자 수가 줄어들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 예측이 나왔다. 이에 더해 경기 악화, 기준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경매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지지옥션은 ‘2018년 법원경매 결산 및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법원 경매시장은 낙찰률·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하고 법원 경매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과 DSR 전면 도입 등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올해 경매시장을 주도했던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 응찰자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 따라 경매 건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실제 경매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매 진행 건수 증가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전망이다.

진행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요인은 2월 말부터 1년간 시행된 ‘담보권실행유예제도’가 내년 2월이면 종료된다는 점이다.

진행 건수 증가 예측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는 경기침체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업무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의 진행 건수 증가폭이 주저시설, 토지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 관련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울산과 거제의 공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9월과 10월 각각 4건, 3건에 그쳤으나 11월에는 10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11월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 또한 10월(28건)의 2배인 56건을 기록했다.

경매 진행 건수의 증가는 임차인, 특히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올해 4분기를 달군 ‘강동주택’, ‘강동전세’의 후폭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만큼 내년에는 특히 전세 임차인들에 의한 경매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리츠 상장·공모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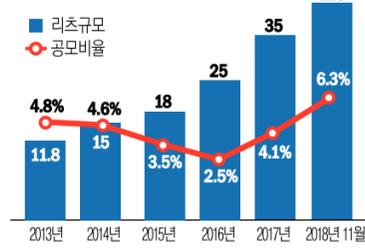
‘비개발 위탁’ 예비심사 폐지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해  
공모리츠 일반인 접근성 높이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투자

정부가 상장·공모 리츠의 상장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리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이 안정성·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더 쉽게 투자하게 하자는 취지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그간 리츠는 빌딩, 리테일(상가·백화점 등)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연 8% 내외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으로 일반국민이 투자할 기회가 부족했다.

일반국민이 투자하기 쉬운 공모·상장리츠가 부족한 데는 △사모리츠 대비 차별화된 혜택 부재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 소요 △까다로운 상장 조건 △객관

리츠 규모 대비 공모리츠 비율 (단위: 조 원)



적 투자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문턱이 높던 리츠 상장 규정을 정비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2개월가량 소요되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제외하고, 우선주 등 종류주를 동시 상장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리츠의 상장 조건으로 20%까지 인정하던 간주부동산 한도를 폐지해 실물자산 외 전세권이나 타

리츠 지분 등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기자본요건 기준일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변경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가 출현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 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우량자산을 사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리츠에 대한 제삼자의 객관적 평가에 따른 투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이 리츠 인가·검사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검사 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서울 거주자 인천 아파트 매입 90% 경중

10월까지 1만236건...부평구 최다  
3기 신도시 발표에 더 탄력받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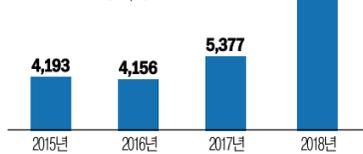
올해 서울 집값이 치솟자 인천으로 떠나는 서울 거주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인천 계양구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입 증가세는 탄력받을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 거주자가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1만236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0%나 상승한 수치다.

인천중에서도 부평 아파트 매입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들의 부평 아파트 매입 건수는 573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4250가구를 매입하면서 전년 대비 641% 뛰었다. 부평은 서울과 인접할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계양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연수구는 33.6% 줄었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인천아파트 건수 (단위: 건)  
\* 출처: 한국감정원, 경제만랩



연수구 아파트 매입 건수는 1646가구였지만, 올해는 972가구로 감소했다.

부평 아파트 매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GTX-B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 굴포천 복원사업, 부평 미군부대 공원화 등의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내년 중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 의지를 보임에 따라 개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부평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9·13 대책 이후에 비규제지역이란 이유로 인천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인천에 3기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GTX-B 노선이 점차 현실화돼 가는 분위기라 그만큼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최대 400명 동시 입장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 오늘 개장...52일간 운영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사진)’가 21일 낮 12시 개장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52일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가든파이브 아이스링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라이프 1층 중앙광장에 들어선다. 1350㎡(30X45m) 규모의 특설 링크로 1회 최대 4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가든파이브라이프는 NC백화점, 현대시티몰, CGV 영화관 등이 입점해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쇼핑, 문화, 외식, 여가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 4번 출구와 연결돼 있고,



총 3750여 개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가든파이브라이프 측은 아이스링크 개장으로 도심 속 색다른 겨울철 놀이 문화공간을 조성,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광장에 설치된 12m 높이의 대형 트리과 다양한 장식물은 야간에 색다른 분위기를 제공한다.

아이스링크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40분이며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 20분~오후 9시 40분이다. 입장료는 평일 4000원, 주말·공휴일은 5000원이며 1회권으로 1시간 20분간 이용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자연의 힘으로  
피부를 다스리다  
Uniquemi Premium Mask

유니데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선유도 코오롱디지털타워 www.uniquemi.co.kr 고객센터 : 1577-9536~7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이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평(3.3㎡)당 평균 분양가는 1820만 원으로 책정됐다. 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다. 내년 1월 7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며, 같은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3-5(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여주 아이파크

교통망 우수... 여주 첫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일대에 '여주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여주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84㎡(84㎡A 392가구, 84㎡B 134가구) 총 526가구로 이뤄진다. 여주시에 공급되는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다.



단지 도보 약 5분 거리에 남한강 및 현암지구 수변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현암지구 수변공원은 한강 8경 중 4경(이능경)에 속해 있는 곳이다. 야외전시장, 물결화단, 생태학습장, 축구장, 리틀야구장, 피크닉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다. 교통망도 이점으로 꼽힌다.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분당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현암로, 강변북로 등의 도로망과도 인접해 있어 여주 도심 접근성도 좋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서여주IC), 영동고속도로(여주IC), 광주~원주 고속도로(대신IC) 등의 광역도로망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어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뒤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지는 전 가구 남향(남서·남동향)으로 배치됐다. 실내는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워크인신발장, 알파룸, 팬트리, 통풍이 가능한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여주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4-3(현암동 법무교차로)에 마련돼 있다.

대우건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대장지구 내 강남 접근성 최고

대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A2블록에서 판교퍼스트힐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판교퍼스트힐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동 A1블록 529가구, A2블록 445가구 등 총 974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는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33가구 △84㎡B 262가구 △84㎡C 81가구 △84㎡D 190가구 △84㎡PA 8가구 등이다. 평(3.3㎡)당 평균분양가는 2030만 원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9-3일대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1년 5월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대장지구에서 서울 강남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 분당 및 판교신도시 접근성도 가장 좋아 신도시 내 백화점을 비롯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특히 2020년에는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 두 지역을 직선으로 잇는 서판교터널(서판교 IC 연결)이 뚫릴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당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아파트 분양가구수가 400가구 정도로 새 아파트 공급이 적은 반면 분당신도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제1판교테크노밸리 외 제2·3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 중이어서 신규 아파트 수요는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SK건설

DMC SK 뷰

수색9 재개발... 트리플 역세권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에 'DMC SK뷰(DMC SK VIEW)' 청약 당첨자를 28일 발표한다. DMC SK뷰는 수색9 재개발비축지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지하 5층~지상 30층, 8개동 총 7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2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를 보면 △59㎡A 38가구 △59㎡B 12가구 △84㎡A 48가구 △84㎡B 23가구 △84㎡C 34가구 △84㎡D 32가구 △84㎡E 35가구 △112㎡ 28가구 등이다.



교통 여건을 보면 지하철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 앞 30여 개 버스 노선을 이용해 DMC 업무지구, 광화문, 시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증산·수색초, 증산·연서·상신중, 송실고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 이마트 수색점, 홈플러스 월드킴점, 신촌 현대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0월에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 원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두산건설

안양호계두산위브

84㎡ 이하 중소형... GTX 수혜

두산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안양호계두산위브'를 분양 중이다. 안양호계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37층, 8개동 총 855가구의 재개발 단지이다. 이 중 일반분양물량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6㎡ 20가구 △43㎡ 5가구 △59㎡ 15가구 △70㎡ 159가구 △84㎡ 215가구 등 414가구다.



교통 여건이 안양호계두산위브의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 IC와 평촌 IC가 가까운 것을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1번 국도 등이 가까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74.2km) 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안양호계두산위브의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1850만 원이다. 발코니 확장과 함께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교육 여건을 보면 반경 1km 이내에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평촌시립도서관, 평촌학원가 등의 교육시설도 주변에 위치해 있다. 안양호계두산위브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한화건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잔금 25% 2년 유예 등 혜택

한화건설이 김포시 풍무5지구에 공급한 1810가구 대단지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가 분양 마감 앞을 앞두고 있다. 잔여가구에 대해 잔금 2년 유예, 특별지원금 등 분양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에는 지하 2층, 지상 10~26층, 26개 동으로 이뤄진 1810가구 대단지다.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현재는 전용 101㎡(구 39형), 117㎡(구 46형) 일부 잔여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한화건설은 분양마감을 앞두고 전용면적 101㎡, 117㎡ 한정 가구에 대해 분양대금의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입주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용면적 101㎡의 경우 약 6000만 원대의 실입주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해졌다.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60%를 내고(대출 가능자에 한함), 25%를 2년간 납부 유예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집값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일부 가구에 한층해 대출이자와 취득세를 12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 계약 시에는 별도의 청약통장이나 자격요건이 필요 없고 2000만 원 계약금 정액제를 실시하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분양 홍보관은 풍무로68번길 39 김포 풍무 꿈에그린 유로메트로 1단지 114동 303호에 위치해 있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다양한 특화설계 층간소음 뚝

대림산업은 이달 중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8~27층, 8개 동, 총 823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51~109㎡ 40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보면 △51㎡ 2가구 △59㎡ 158가구 △74㎡ 122가구 △84㎡ 104가구 △109㎡ 17가구 등이다. 견본주택은 용두5구역 사업지인 동대문구 용두동 251-9번지 일대에 마련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일반 아파트에 보통 30mm로 적용되는 층간 차음재를 2배 두꺼운 60mm로 설계했다. 욕실 내 바닥의 상부로 배관이 지나가는 층상벽면배관 공법을 적용해 층간생활 소음을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특수 필터가 적용된 환기 시스템을 마련했다. 일반 아파트보다 10cm 높은 천정(2.4m)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구 내부와 공용부에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LED 전구를 적용했으며 특히 안방과 거실 전등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밖에 단지는 1호선 신설동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을 통해 종로 및 강남 일대의 중심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을 갖췄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판교밸리 5분' 직주근접 우수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지구(이하 판교대장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판교대장지구 A3·4·6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0층(A3블록 121가구, A6블록 464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A4블록 251가구) 규모로 계획돼 있다. 블록별 공급 가구수는 A3블록이 △139㎡ 99가구 △145㎡ 9가구 △147㎡ 11가구 △162㎡ 2가구, A4블록이 △131㎡ 246가구 △159㎡ 5가구, A6블록이 △128㎡ 464가구 등이다.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하며 총 92만467㎡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2020년까지 공동주택(15개 블록)과 단독주택으로 총 590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대장지구 바로 옆 서분당IC를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로 바로 진입 가능하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보평고, 판교고, 낙성고, 서현고 등 명문학교가 밀집한 분당구에 배정될 예정이다. 직주근접 환경도 눈길을 끈다.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다. 성남시 시흥동, 금토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도 내년 조성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약 58만㎡의 제3판교테크노밸리도 2023년 준공 계획을 잡고 있다.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 희망을 싹 틔웁니다

아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미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신한이 희망을 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 Hope. Together.



### [신한장학재단]

신한금융그룹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순직 유가족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년 임원인사 키워드 '수익 확대·전문경영'

## 제약업계는 지금

제약업계가 새해를 앞두고 적재적소에 새 인물을 배치하고 있다. 회사의 성장 계획을 재확인하고 경쟁력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보령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은 신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약품은 이관순 상근 고문을 글로벌 전략 부회장으로 임명하면서 약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시켰다. 이 신임 부회장은 한미약품 대규모 기술수출의 주역이다.

이 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한미약품에 입사해 연구장, 연구개발본부 사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2015년 8조 원대 기술수출을 이끌어내는 등 한미약품을 R&D 중심 제약사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2016년 폐암 신약 '올리타정'의 기술 수출이 파기되고, 뒤이어 직장 암시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3월 대표이사 직위를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미약품은 이 부회장에게 글로벌 전략을 일임하면서 기술수출 파트너사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이들 과제의 효과적인 개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



이관순 부회장 안재현 부사장 김상진 사장 전광현 사장

### 한미약품 기술수출 주역 이관순 부회장, 2년 만에 경영 복귀 보령제약 안재현 신임 대표 '오너경영→전문경영' 체제 전환 SK케미칼 LS Biz 전광현·삼일제약 김상진 '마케팅맨' 포진

은 상당수 개발 단계에 진입했으며, 일부는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 2019년은 R&D 모멘텀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이 부회장은 18일 한미약품 퇴직 임원 모임 '한중회' 송년의 밤에서 "현재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2건의 글로벌 3상 임상과 2~3건의 2상을 진행하고 있어 2~3년 이내에 최소 1개의 글로벌 신약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경영관리를 맡은 우중수 사장과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권세창 사장 공동대표 체제에 이 부회장이 가세하면서 각 영역에서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령제약은 오너 2세인 김은선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신임 대표이사로 안재현 보령제약 경영 부문대표(부사장)를 선임했다. 1963년 창립 이래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하던 보령제약이 전문경영인으로만 판을 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대표는 송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일모직 경영지원실장을 거쳐 2012년 보령제약에 입사, 전략기획실장과 보령홀딩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보령제약의 경영을 책임질 그는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삼일제약은 영업 및 마케팅 총괄사장에

김상진 전 한독 부사장을 영입했다. 김 사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91년 한국 안센에 입사한 후 벨기에 안센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중추신경계 제품 마케팅을 담당했다.

또 2006년 홍콩안센 사장, 2008년 타이완안센 사장을 맡으며 타이완안센의 매출을 아태 안센 중 1~2위로 유지하는 등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한독 부사장 재임 시절에는 전문의약품 영업 마케팅 업무를 총괄했으며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지속 성장을 이뤘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1월 신약개발과 개량신약,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에 40여 년간 몸담은 곁의 사장님을 영입한 데 이어 김 사장을 추가 영입했다"며 "젊은 에너지와 전문성을 겸비한 회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 사업에 공들이고 있는 SK케미칼은 라이프사이언스비즈(LS Biz.) 사장에 전광현 제약사업부 대표를 선임했다. 올해 7월 백신사업부문을 SK바이오사이언스로 분할한 SK케미칼은 각 분야의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1990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전 사장은 SK케미칼 LS전략기획실장, 마케팅기획실장, LS마케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영업·마케팅 능력을 쌓으며 SK케미칼의 제약사업부문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혜은 기자 euna@

### 건강한 픽템

**유한양행 '해피홈 메디핑'**



인체 부위에 맞게 잘라 부착  
식이유황·글루코사민 성분

스포츠 테이핑은 전체 근육을 따라 넓은 부위에 부착함으로써 신축성 테이프의 접착성과 탄력성을 이용해 혈액 림프의 흐름을 지속해서 원활하게 하고 혈행 개선과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외 전문 운동선수들도 근육 피로 저하와 근육 통증 억제를 위해 스포츠 테이핑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최근 온열효과가 뛰어난 프리컷 스포츠 테이프 제품 '해피홈 메디핑'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박찬호 크림'으로 잘 알려진 파워플레이스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했다. 기존 스포츠 테이프 제품의 단점을 개선해 인체 부위에 맞도록 다양하게 커팅, 누구든 쉽게 부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스포츠 테이프 제품의 근육 보호와 혈액 순환 등 부상 방지 기능과 함께 식이유황과 글루코사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테이핑 효과와 함께 온열 찜질 효과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식이유황은 관절과 피부는 물론 염증이 효과적인 성분으로 연골과 관절에 도움을 주는 천연추출물이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연골의 주요 구성성분을 생성하는 물질로, 관절의 충격 완화에 도움을 준다.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의 움직임을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다.

해피홈 메디핑은 사용 부위에 따라 다이아몬드 타입, 밴드 타입, 와이(Y) 타입, 링 타입으로 다양하게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베이지, 레드, 블랙의 3가지 색상으로 이용자의 선호까지 고려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스포츠 테이핑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해피홈 메디핑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길 바란다"며 "이번에 출시되는 메디핑 제품이 '운동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바이오 IPO '러시' 내년에도 이어진다



**2019년 IPO 전망 기업**

기업	특징
SK바이오팜	SK그룹 신약개발 자회사
셀리드	면역치료 백신 개발
노브메타파마	당뇨병치료제 개발
와이바이오로직스	항체신약 개발
노바셀테크놀로지	바이오신약, 바이오마커

### 최대어 꼽히는 SK바이오팜, 美 나스닥·국내 상장 '저울질' 3번째 도전 툴젠, 이전상장 지노믹트리·젠큐릭스 등 20여 곳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을 주도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내년에도 활발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굵직한 임상 결과 확인을 앞두고 투자심리 회복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19년 20여 곳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증시 입성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SK바이오팜을 비롯해 유전자기위 전문업체 툴젠과 항체신약 개발 전문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 면역치료 백신 개발기업 셀리드, 당뇨병치료제 개발기업 노브메타파마 등이 상장을 노리고 있다.

SK의 신약개발 자회사 SK바이오팜은 내년 제약·바이오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현재 미국 나스닥과 국내 시장 상장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뇌전증 신약 후보물

질 '세노바메이트'의 신약 판매허가 신청서(NDA)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판매 허가를 받으면 2020년 상반기 내 미국 판매가 가능하다. 수면장애 신약 '솔리암페톨' 역시 NDA를 제출해 상업화 기대가 높다. 이 밖에 16개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시험 승인(IND)을 FDA로부터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의 신약 가치는 6조2172억 원으로 추정된다.

코넥스 상장사 툴젠은 코스닥 입성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IPO에 나선다. 노브메타파마는 상장예비심사가 장기화하면서 상장이 내년으로 미뤄진 사례다.

13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셀리드는 내년 1분기 내 상장 예정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항암면역치료백신 기반

기술 셀리백스(CeliVax)다.

코넥스 시가총액 3위 기업인 대장암 진단 전문 지노믹트리와 젠큐릭스, 수젠택 등도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노믹트리는 지난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2월 코스닥시장에 안착한 동구바이오제약의 계열사 노바셀테크놀로지는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 중이다. 노바셀테크놀로지는 펩타이드 라이브러리 플랫폼기술 기반 회사로 생리·병리적 조건에서 변하는 단백질체를 비교 분석해 바이오신약, 바이오마커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중시 부진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 등 약재 속에 숨을 골랐던 IPO 예정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상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보다 더 많은 IPO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우리 증시에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엔지켐생명과학, 하나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제약·바이오기업 13곳이 IPO를 실시,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수출 대박난 대응제약 '나보타'

### 뉴질랜드·이스라엘·우크라이나에 5년간 135억 계약

대응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나보타'를 뉴질랜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포함), 우크라이나에 수출한다.

대응제약은 이들 국가와 5년간 총 1200만 달러(약 13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지 허가절차를 거쳐 2020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대응제약은 나보타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현지 파트너사가 해당 국가에서의 허가 및 판매를 맡게

된다.

대응제약은 견고한 판매 및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의 나보타 발매를 가속화하고 현지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 파트너사인 더글라스(Douglas Pharmaceuticals)는 현지 로컬 제약 1위 회사로 다수의 의약품 허가 경험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파트너사인 루미네라



(Luminera Derm., Ltd)는 이스라엘 로컬 제약사 파낙시아(Panaxia)의 계열사이자 다수의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미용 전문회사다. 우크라이나 파트너사인 토티스(Totis Pharma Group)는 필러 등 미용 분야 제품 사업을 운

영하며, 현지 전역에 탄탄한 판매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박성수 대응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이번 나보타 수출계약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미용 신흥국에서도 수출 교두보를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나보타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2020년까지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나보타 발매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보타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내년 2월께 FDA 허가가 예상되며, 상반기 중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혜은 기자 euna@

# 반짝 빛나는 60m 트리

# 살짝 소원 빌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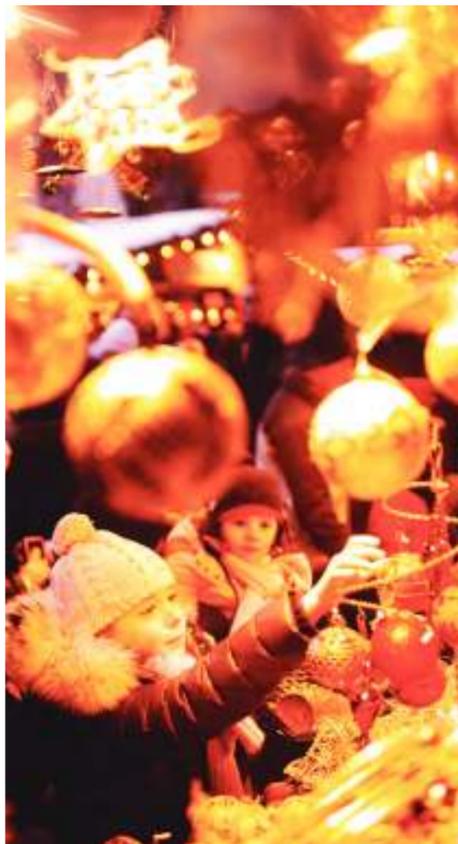


비엔나 크리스마스 월드 라트하우스플라츠. 사진제공 비엔나관광청

## 올 댓 트립 오스트리아 비엔나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지고 싶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커다란 트리와 색색의 조명으로 눈부시게 치장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북적이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날. 맛있는 음식과 예쁜 기념품들까지 가득한 크리스마스에는 굳이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사진 찍고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방문하기 좋은 유럽의 관광지 중 꼽히는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불리는 비엔나의 재림절(Advent)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이 기간, 즉 12월 한 달을 의미한다. 비엔나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만 열 곳이 넘는다. 겨울 유럽 여행을 준비할 때 비엔나를 빼놓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이 닿는 곳 어디서든 크리스마스 시즌의 축제 분위기를 가장 잘 만끽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마켓 풍경. 사진제공 비엔나관광청

◇ '오감만족' 비엔나의 축제들, 아늑한 낭만 속으로 빠지다 = 비엔나의 거리는 돌이 아닌 역사로 포장돼 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실제로 비엔나 도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과거와 현대가 만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전경에 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 아치형의 마당, 향긋한 커피향으로 유혹하는 아늑한 커피하우스와 도심에 위치한 웅장한 궁전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공상에 빠지게 한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저녁, 크리스마스 장식 조명이 비엔나를 오색 빛깔 반짝이는 바다로 만든다. 축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그라벤(Graben) 거리의 초대형 상들리에와 로텐 투름(Rotenturm) 거리의 거대한 빨간 장갑을 비롯해 20km에 달하는 40여 개 다양한 색의 장식과 250만 개의 전구가 있을 수 없는 거리를 꾸민다. 대부분의 전구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LED 전구다.

하이라이트는 바로 쇼텐링(Schottenring)에 위치한 초대형 트리. 트리는 60m로, 건물의 19층 높이 정도이며, 오로지 전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2012년 빈 경제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빈을 방문한 관광객의 98%가 크리스마스 시즌 중 전구 장식을 인상 깊었던 볼거리로 꼽았다.

21일 콘체르트 하우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비엔나 갈라 콘서트가 열려 일류 오페라 가수들이 전통 캐럴과 인터내셔널 캐럴을 노래한다. 성 슈테판 성당(St. Stephen's Cathedral)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재림절 콘서트를 개최한다. 빈 소년합창단(Vienna Boys' Choir)의 공연은 무스홀에서 들을 수 있다. 프라이유 크리스마스 마켓과 윈브룬 궁전 크리스마스 마켓을 포함한 많은 크리스마스 마켓도 합창단과 브라스밴드의 노랫소리로 가득 찬다.

◇ 비엔나 현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길까 = 비엔나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욱 아름다워진다. 트리 장식방울, 비즈와스 캔들, 펀치, 쿠키, 선물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위한 오색 빛깔의 불빛들로 장식된 비엔

**전구로 만든 19층 높이 트리 '감동' 246년 역사 간직한 'X-mas 마켓'**  
**웅장한 궁전부터 구석구석 골목까지 발 닿는 곳마다 '12월의 축제' 풍성**

나의 거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거니는 것만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여행도 드물다.

비엔나의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전통 중 하나는 '케이크와 쿠키 베이킹'이다. 말린 과일을 넣어 만든 독일식 로프 케이크 '크리스트 슈톨렌'(Christstollen), 별 모양의 시나몬 쿠키 '짐트슈테르네'(Zimtsterne), 견과류 가루가 들어간 초승달 모양의 바닐라 쇼트 브레드 쿠키 '바닐라킵펠'(Vanillekipferl) 등은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디저트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쿠키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일반 제과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비엔나 현지인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또 하나의 전통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비엔나 시민들은 전나무 가문비나무 같은 상록수를 양초, 방울, 전구, 천사 등 반짝이는 장식품으로 꾸며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크리스마스 마켓과 교회에 세워놓는다.

비엔나에서 가장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라트하우스플라츠 크리스마스 마켓에 있는 것으로, 보통 30m 정도 된다. 비엔나 시민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전에

몇 주간 집 안에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놓인 색색으로 포장된 선물을 열어본다.

◇ 가장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크리스마스를 마시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인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의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298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화려한 외관으로 유명한 시청사 앞에서 열리는데, 다른 마켓들에 비해 다소 일찍 시작한다. 11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 시기가 되면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사뿐만 아니라 쉐부른 궁전, 벨베데레 궁전 등 유명 관광지들과 작은 성당, 골목 구석구석까지 예쁜 장식들로 웃을 갈아입는다.

시청사 앞에는 수백 개의 친환경 LED 조명으로 꾸며진 30m 높이의 트리와 150여 개의 다채로운 좌판들이 펼쳐진다. 각 좌판은 수공예품, 디저트, 소시지, 간단한 스낵류와 따뜻한 펀치, 멀드와인으로 방문객들을 유혹한다.

라트하우스플라츠와 주변 공원에 4000평 규모의 스케이트장도 설치된다. 게임, 회전목마 및 순록 열차를 포함해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 거리도 함께 준비된다.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글루 바인(Glukhwein)'. 뱃쇼라고도 하는 와인을 끓인 음료다. 따뜻하게 끓인 와인엔 레몬과 사과, 오렌지, 시나몬 등을 넣으면 완성. 추운 날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사람 간의 거리도 좁혀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 개성 만점 크리스마스 마켓들 =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을 위협하는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있다. 올드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Old Viennese Christmas Market)이 열리는 프라이유는 비엔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1772년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와플이나 따뜻한 사과 음료, 펀치, 핫 초콜릿 등으로 몸을 녹이며 수공예품과 예술 작품들을 구경한다.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성탄화, 유리공예품, 도자기, 장난감들이 준비돼 있다. 매일 오후 음악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세션이 열리고, 주말이면 수공예품 제작 시연이 있다. 23일까지 진행된다.

슈페스트링의 리츠칼튼 루프탑 바에서 열리는 비엔나 리츠칼튼 루프탑 바 크리스마스 마켓(Christmas Market at the Rooftop Bar of the Ritz Carlton)은 비엔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열리는 마켓이다. 럭셔리 호텔의 옥상 테라스에서는 알프스의 오두막이 지어져 편

지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비엔나의 아름다운 뷰를 즐길 수 있다. 26일까지 진행된다.

◇ 비엔나서 2019년을 맞이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 = 비엔나의 새해 전야제는 성대하다. 한 해의 마지막 밤, 비엔나 구시가지 대로와 광장의 낭만적인 조약돌 길은 시끄럽고 활기 넘치는 파티 장소로 변신한다. 스파클링 와인, 펀치, 맥거리 등을 파는 매점들로 가득 찬 신년맞이 트레일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오후 2시부터 끝없는 공연과 라이브 뮤직, 여러 가지 이벤트 행렬이 이어진다. 전통 왈츠부터 클래식 히트 송과 과거의 명곡들까지 모든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바깥에는 거대한 야외 스크린이 마련돼 오페라 실황(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Die Fledermaus)을 중계한다.

자정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슈테판 광장으로 몰려든다. 이곳에서는 굴라쉬 수프, 소시지 등 다양한 전통 음식을 따뜻한 펀치와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정에 맞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종인 슈테판 성당의 퍼머린(Pummerin) 종이 울리며 새해를 알린다.

종소리가 울리면 블루 다뉴브 왈츠의 바에서는 연주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샴페인을 터뜨린다. 옆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서로의 행운을 빌어주며 건배를 외친다. 파티는 이른 아침까지 계속된다.

좀 더 활동적인 것을 찾는다면 링슈트라세 대로에서부터 비엔나의 모든 인기 관광지를 지나는 5.4km의 신년맞이 마라톤을 추천한다. 다뉴브강에서 신년 크루즈를 타고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는 것도 인기 있는 신년 이벤트 중 하나다. 김소희 기자 ksh@

### 알려두는 여행 tip



##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새해맞이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콘서트는 놓칠 수 없는 하이라이트다. 1941년에 시작된 이 콘서트는 매년 5000만 명이 관람한다.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 지휘자들이 그동안 아름다운 무지크페라임(Musikverein) 골든홀에서 지휘봉을 잡았다.

12월 30일의 드레스리허설, 12월 31일의 새해 전야 콘서트, 1월 1일의 신년 콘서트는 유난히 수요가 높아 온라인 추첨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비엔나 필하모닉 웹사이트에 1월에 가입해야만 다음 해 신년 콘서트의 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콘서트 티켓 추첨은 2019년 1월에 열린다. 표를 구하지 못할 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트하우스플라츠의 스크린으로도 콘서트를 중계한다.



주인공인 삶을 원해?  
세상을 바꾸길 원해?

# 응, 원해! 우리도, 응원해! 스무살 우리를 응원해!



'스무살우리'는 젊은이들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는  
우리은행의 새로운 유스브랜드입니다



## 스무살우리



# 적금

2018.12.3 세금납부전 기준, 3년제 가입 시

## 최고 연 3.8%

청춘특권!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누구나  
차곡차곡!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3년 적립!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03 준법감시안-2049 심의필(유효기간:2019.12.31)

# “일과 삶·직장과 가정의 균형, 기업경쟁력에 필수”

## ‘가족친화 우수기업’ 메트라이프생명 김상수 인사담당 전무

### 선택적 근무시간·임직원 자녀 초청·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건강한 조직문화, 업무 효율성 높여”

김상수(사진) 메트라이프생명 인사담당 전무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행복한 회사생활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은 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미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 임직원 자녀 초청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6년에 도입한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제도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어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육아나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김 전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임직원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여성가족부와 진행 중”이라며 “가족친화 인증에 기준이 있는데 이에 부합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균형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영진 리더십과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평가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선택적 근무제를 도입해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라며 “아이가 있는 워킹맘을 배려해 아침에 학교 보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 육아휴직 제도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을) 많이 가는 추세이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 밖에 임직원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미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모의 직업과 일터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도 운영하고 있다.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해 스트레스 관리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워보는 시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업무나 가정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칭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제공해 임직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잡플래닛이 선정한 ‘임직원이 뽑은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 부문에 선정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 12월 자랑스러운 中企에 재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생산업체 케이에스아이 재종술(사진) 대표이사를 뽑았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에 있는 케이에스아이는 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강소기업으로, 특허 60여 건과 디자인 500건 등 모두 560여 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은 177억 원으로, 최근 7년간 매출이 149.3% 증가하고 최근 2년간 수출은 25% 늘었다. 재 대표는 값싼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하고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송창현 네이버 CTO 내달 사임

송창현(사진) 네이버랩스 대표 겸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내달 물러난다.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사의 의사를 밝히고 내년 1월 31일 퇴직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송 대표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고 미래기술 관련 스타트업 창업에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08년 네이버에 처음 입사해 2015년부터 CTO를 맡았다. 그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주도해 왔다. 송 대표는 “내가 없어도 네이버랩스의 연구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 “올해 골프계 최고 장면은 최호성의 ‘낙시꾼 스윙’”

###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최호성(45·사진)의 ‘낙시꾼 스윙’이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올해 골프계 최고의 장면으로 뽑혔다.

골프다이제스트는 20일 올해 골프 관련 소식 온라인 뉴스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끈 10대 장면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최호성의 낙시꾼 스윙을 1위로 뽑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최호성에 대해 “20대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잃었다”며 “코리아오픈에서 우승하지 못해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골프 발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내년 마스터스 초청 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윙하는 동작이 마치 낙시꾼이 낙시채를 잡아채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낙시꾼 스윙’이라는 별명을 얻은 최호성은 지난날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카시오 월드 오픈에서 우승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20일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성금 기탁식에서 최상인 동서식품 홍보실장(왼쪽부터), 박정규 동서식품 부사장,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서식품

## 동서·동서식품, 이웃돕기 성금 5억5000만원 기탁

동서와 동서식품은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등에 5억 5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탁 성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와 동서식품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따뜻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한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웃들 기자 flowerslee@

##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에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세계경제연구원은 새 이사장으로 전광우(사진)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 선임 이사장은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금융 대사 등을 지냈다. 내년 1월 1일자로 취임하며 정해진 임기는 없다.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1급 승진> △공제기금실 권영근 △단체표준국 김형락 <2급 승진> △감사실 이기중 △총무회계부 이상배 △소상공인벤처산업부 신상홍 △무역촉진부 최경영 △금융투자부 이윤희 △정보시스템부 김관식 △경기북부지역본부 정경은 <3급 승진> △전략기획실 이은지 △인사부 이민경 △정책총괄실 김철우 △조합정책실 김희중 △편입국 하승우 △판로지원부 양현준 △무역촉진부 유진호 △정보시스템부 우민식 △부산울산지역본부 민경일 △경기북부지역본부 정영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상무이사 승진> 박병일 이우식

◆롯데그룹 · 롯데백화점 △부사장 장호주 △전무 류민열 △상무 유영택 이선대 현종혁 김상수 △상무부A 박현 김정현 김영희 김명규 최영준 김두원 △상무부B 최광원 조용욱 김상우 정현석 김해라 이건우 김종환 · 롯데마트 △전무 장대식 △상무 강민호 정재우 △상무부A 서현선 정원현 이상진 △상무부B 박세호 남용욱 박종호 · 롯데슈퍼 △상무부A 김동하 이재국 △

상무부B 조준 이병택 정인규 · 롯데캐머스 △상무 임서목 김혜영 △상무부A 김장규 홍상우 △상무부B 이혁 · 롯데하이마트 △전무 김진호 황영근 △상무 하영수 △상무부A 공갑배 이찬일 △상무부B 하수훈 신현채 조광규 문병철 · 롯데컬처웍스 △상무 지형수 △상무부A 김병문 정경재 △상무부B 이미선 ·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부A 정동욱 △상무부B 오국진 조장락 · 롯데로지스틱스 △상무 문종길 △상무부B 하중수 · 롯데지일에스 △상무부A 김치만 이민규 △상무부B 홍성일 김동진 · 롯데자산개발 △상무 이상근 △상무부A 박준욱 △상무부B 송준현 윤재성 · 부산롯데호텔 △상무부B 이동주 · 롯데상사 △상무부B 이세호 · 롯데엠시 시 △상무부A 김상명 △상무부B 이태환 ·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상무부B 유승용 · 낙천영광자산유한공사 △상무 정은중 △상무부B 오수진 · 낙천기업관리유한공사 △상무부A 최만규

◆포스코 <신규선임> △부문장 △오규석 신성장부문장 △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승진> △부사장 △유병욱 구매투자본부장 △최주 기술연구원장 △이시우 광양

제철소장 △정창화 POSCO-China 중국 대표법인장 △전무 △윤양수 자동차소재마케팅실장 △김순기 노무협력실장 △이전혁 비철강사업관리실장 △김복태 판매생산조정실장 △전성태 열연선재마케팅실장 △김정수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 △김광무 철강기획실장 △상무 △정경진 △김용수 △정대형 △김경찬 △이철호 △김상철 △천시열 △송치영 △이찬기 △강성욱 △조주익 △양병호 △최영 △윤장우 △오경식 △최종교 △한수호 △이원근 △김봉철 △권영철 △황규삼 △서영기 △제은철

◆포스코대우 <승진> △부사장 △이훈승 해외철강본부장 △남철순 중국지역총괄(북경무역법인장 겸무) △전무 △이용석 경영지원본부장 △이호경 식량화학본부장 △손광주 자카르타지사장 △상무 △황보국 일본무역법인 오사카지사장 △박석용 비철사업실장 △이상훈 미안마지역총괄(미안마무역법인장 겸무) △상무부 △이수환 철강원료사업실 철강원료2그룹장 △원명성 STS냉연1그룹장 △이창주 말레이시아무역법인장 △황의용 석유화학사업실장 <신규선임> △전무 △노민용 경영기획본부장 △김광수 국내철강본부장

△황보원 열연사업실장 △상무 △김동호 TMC사업부장 △류정우 일본지역총괄(일본무역법인장 겸무) △박원재 인프라 지원실장 △정해익 스테인리스사업실장 △상무부 △박종민 박판사업실장 △운영주 강간재후판사업실장 △도철호 신성장사업실장 △박종석 아프리카사업추진반장 △유영태 조강선재사업실장 △신성원 커뮤니케이션실장

◆BNK금융그룹 · BNK금융투자 △상무 대우 승진 △전략기획부 김용관 △신성장 전략부 양성은 △CIB기획부 김희욱 · 부산은행 △상무대우 승진 △양산영업부 손대진 △연산동지점 허영선 · BNK저축은행(본부장 승진) △서울영업부 본부장 광경화 · BNK자산운용(상무부 승진) △경영전략본부 이우선 <담당이사 승진> △상품지원팀 운영국 △Active 운용본부 이진민

◆정식품 · 정식품 <승진> △상무 박종범(기획관리부문장) △상무 배영용(기술부문장) △상무 김훈태(영업마케팅부문장) · 자연과사람들 <선임> △전무 최승림(총괄전무) · 오세 <보직임명> △상무 전철호(총괄상무) <승진> △상무부 김승배(관리부문장)

## 부음

▲이상무 씨 별세, 이수정(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슬비(북인천세무서 국세조사관) 씨 부친상, 서창환(KT스카이라이프 기획실 차장)·구성현(이투데이 사회경제부 차장) 씨 장인상 =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1

▲임희성 씨 별세, 임태훈(신한금융투자 법인선물옵션부 부부장)·제규(삼성전자 VD사업부 차장) 씨 부친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2일 오전, 02-2258-5940

▲홍현수 씨 별세, 홍성훈(수출입은행 경영총괄부장)·성국 씨 부친상 = 19일,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 40분, 032-577-0497

▲김상수 씨 별세, 서근우(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근복(동명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영희(한국산업기술대교수)·영란 씨 모친상 = 20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0

▲송덕남 씨 별세, 서영석(YTN 디자인 센터장) 씨 모친상 = 19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21일 낮 12시, 02-2225-1004

▲박병희(전 보람증권 회장) 씨 별세, 박진원(LG경제연구원 전무, 전 SBS 논설위원)·화영(미술작가) 씨 부친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2일 오전, 02-3410-6920

▲김은재 씨 별세, 김용국(한국계인산업 협회 사업국장) 씨 부친상 = 20일, 고대병원 구로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2일, 02-857-0444

대방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그늘에도 따스한 눈길을

모든 사람이 다 전산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기계어, 컴퓨터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일반인들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에게 맞추도록 말이다.

몇 해 전 대형 양판점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몇몇 양판점이 이 법 시행으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다.

필자 가족은 개인 차원에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양판점과 전통시장에서 사야 할 품목을 나누어 쇼핑하는데, 양말이나 내의는 전통시장 구매 품목에 들어 있다. 한번은 자주 가는 동네 전통시장에서 내의를 샀다가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부득이 주문을 취소해야 했다. 그런데 칠십대 중반은 돼 보이는 주인 할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며 거부했다. 합리적 이유를 대지 않아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이래서 전통시장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지'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주문 취소 후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물건을 사지 않는 소극

적 대응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섰다.

가게를 나가면서 보니 현금출납기 옆에 손으로 쓴 매뉴얼 비슷한 것이 눈에 띄었다. 짧은 순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새로 주문하는 것에 할머니가 익숙지 않아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신 취소해 드리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두꺼운 마분지에 불펜으로 꼭꼭 눌러 쓴 메모지를 건네 주며 직접 해보라고 했다. 아마도 자녀가 써주었으리라. 간단한 것인데도 기계를 조작하는 것에 서툰 할머니는 본의 아니게 손님에게 통명스럽게 대했던 것이다. 다 하고 나니 심술 사나운 할머니로 알았던 가게 주인에게 그런 얼굴이 있었나 싶게 환하게 웃으신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양말 한 켤레를 담으로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새로운 디바이스(device)에 대해 얼리어답터(early adapter) 정도는 아니지만 전공 특성상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다. 그런데도 학교나 외부 연구

기관과 전산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가 가끔은 마치 바보가 된 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자주 바뀌는 전산시스템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 - 그것이 대학이든 관공서든 - 몇 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에 서두르지 말고 차분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그런데도 때로는 두어 시간을 허비하고도 끝까지 못하고 만다. 패배감과 동시에 화가 난다. 분업인 연구와 교육에 쏟아야 할 시간에 전산 전문가 훈련을 받고 있구나...

매번 반복하듯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다. 담당자는 선심 쓰듯 이번에 한해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컴퓨터 간 연결을 한다. 컴퓨터 화면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보노라면 누군가 내 일 기장을 훑쳐보는 것도 같고, 내 집 안을 살살이 훑어보는 것 같아 영 기분이 개운치 않다. 마분지에 적힌 대로 카드 단말기를 조작할 때 곁에서 지켜보던 할머니의 긴장된 표정이 꼭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공연히 아까운 몇 시간을 허비

하고 말았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전산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기계어, 컴퓨터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일반인들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에게 맞추도록 말이다. 이제 몇 년 지나면 카드 단말기에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과 주문 취소 정도가 아닌 다른 기계 처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어 능력이나 컴퓨터 등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차이(디바이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디바이드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차는 액셀러레이터만 뛰어난 안 된다.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액셀러레이터를 마음껏 밟을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그늘에도 따스한 눈길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CEO 칼럼



민경선 커뮤니파트너스 대표이사

먹고살기 힘들다고 한다. 내년엔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며 다들 걱정이다. 지지한 정치인을 들먹이며 잘못 뻘뻘했다고 후회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아파트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 진작에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흥이 나지 않는 서민의 연말엔 '그때 다른 결정을 했었다더라면'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소주 한잔에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하는 정도였다면 좋지만, 굳이 남 탓을 할 때부터 잘못은 시작된다. 뒷말은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나 계속 듣다 보면 '나 못났소'라며 자기 못남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아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뒷말은 자기 반성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우리에게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이다.

무척 위험한 자기 정당화 화살이 결국 남 탓을 하는 못난 사람에게 겨누어지는 것 또한 인지상정이기 때문일까. 뒷말하는 사람치고 일이 제대로 잘 풀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비슷하게 보이는 뒷말화와 뒷말의 의미는 엄연히 다르다. 뒷말화는 당사자가 없는 와중에 폄하하고 지적질하는 걸 의미한다. 반면 뒷말은 동조하는 것처럼 같이 일을 벌였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슬쩍 발을 빼면서, 자기 생각이 원래 달랐다고 사실을 왜곡해 해소하려는 모양새를 말한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리더의 판단이 너무 독단적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등 다른 이들의 동정을 대놓고 바란다. 좀 과할 때는 '이때다' 싶어 리더의 실수를 밝고 올라서려는 욕심의 끝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패할 줄 알았다"며 자판과 비열의 끝을 보여주는 것 또한 뒷말이다. 이로 인해

차라리 뒷담화가 인간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말하는 주제도 욕먹고, 듣는 사람도 어이없게 할 뒷말은 과연 어떤 때, 어떤 종류의 사람이 하는 언행일까. 경험에 비추어보면, 뒷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은 대부분은 자책지심이 강한 사람이다. 딱히 누군가에게 못 미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유아독존'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높은 피해의식이 작용한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딱히 약도 없다. 그대로 못 들은 척 무시하든지 '그래야 했을걸'이라며 미안함의 말 한마디 거들고 있자니 결과를 뻔히 보고 하는 지난 계획 이야 누구든 못 할까 하는 어이없음에 영입상으로 보인다. 간혹, '그 나물에 그 밥'의 동족들만 남아 서로의 뒷말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걸 보면 그 또한 가관이다. 그 안에서도 호시탐탐 이간질과 유언비어, 뒷담화의 표적은 끊임없이 공작되기에 뒷말하는 작자와는 이후 멀리해야 한다. 적어도 뒷말하는 사

람에게 있어서 하나가 열을 말해준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는다. 뒷말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에게 명확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구함으로써 결과의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도전의 용기부터 칭찬하고 이어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자. 재도전의 기회가 오면 응당 맞서야 할 주제임을 알려주고 비로소 성공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뒷말은 받아주는 사람에게 찾아오고, 받아주지 버릇을 들이면 나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 상종하지 말고, 차단해야 하며, 맞장구치지 않으며, 나쁜 행동이라고 말해줘야 한다. 살면서 남 탓 한번 하지 않고 어찌 살겠나마는 과정을 무시한 결과론적인 책임 회피는 그 자체로 나쁘다. 뒷말하는 사람들은 보는 즉시 멀리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 스코트 피츠제럴드 명언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미국의 소설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는 "당신이 특별히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딱 맞는 단어를 찾아 헤매라. 낯선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글쓰기의 교훈을 남겼다. 그는 대표작 '위대한 개츠비' 외에 16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오늘은 그가 별세한 날. 1896~1940. ☆ 고사성어/배수지진(背水之陣) 물을 등지고 친 진지라는 뜻으로,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대처하는 경우를 비유할 때 쓴다. 한나라 한신(韓信)이 조(趙)나라와의 전투에서, 병법과 반대인 전법으로 대승을 거뒀다. 전승 축하연 때 부하들이 배수진을 친 이유를 묻자 한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군사는 이번에 급히 편성한 오합지졸이 아닌가? 이런 군사는 사지(死地)에 두어야만 필사적으로 싸우는 법. 그래서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背水之陣]'이네." 원전은 사기(史記), 십팔사략(十八史略).
- ☆ 시사상식/아마존 이펙트(Amazon effect)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아마존의 진출 소식만 들려도 해당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추락하고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 아마존은 서적, 전자제품 판매에서 소포, 음식 배달 등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업들에 공포를 주고 있다.
- ☆ 유머/월급을 올려준 이유 가정부가 마냥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청소면 청소, 조리면 조리,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주인어른이 칭찬했다며 월급 인상을 주장했다. 마님은 가정부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월급을 올려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한테 그거도 참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주인어른이?" "아뇨. 그건 정원사 아저씨세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살연구소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약업계의 입맛이 쓰다. 연말을 맞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다시 불이 붙은 탓이다. 늘 그렇듯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고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의 오랜 악습이었다. 제네릭(복제약)이 사실상 우리 제약업계의 전부였던 시절에는 온갖 리베이트 아이디어가 판을 쳤다. 고만고만한 제네릭 사이에서 제품력보다는 회사의 리베이트 정책이 제품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던 때였다. 당연히 이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점이 쌓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제약사들이 제네릭 경쟁에서 신

약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조금씩 변모하면서 업계는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제약사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말한다. 다수의 제약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전담부서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모

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지 못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등 체질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37001' 인증도 앞다투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국내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낙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드러나면 곧장 업계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확산하고 만다. 과거의 잘못을 씻기 위해 애를 써도 기술력 없이 리베이트나 제공하는 집단이란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것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전 일을 자꾸 들춰내면서 도매금으로 억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와 국민, 업계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면 실질적 근절을 위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조치가 훨씬 효과적이다. 잘못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색안경을 쓰고 휘두르는 회초리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할 때다.

기자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리베이트 주홍글씨에 속얕이하는 제약업계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온라인뉴스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대표전화 (02)799-2600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구제역·시에 '선방'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 “가축전염병,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

축산 농가에 겨울은 두려운 계절이었다. 가축전염병 공포 때문이다. 겨울이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고 바이러스 매개 역할을 하는 철새도 많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전국의 가축전염병 상황을 살피고 있다. 그 중심에서 방역 정책을 이끄는 오순민(56)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20일 만났다.

◇문 대통령, 방역상황실 찾아 칭찬 = 올해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묻자 오 국장은 “전염병을 이기는 방법을 알았다”고 자부했다. 허풍이 아니다. 전염병으로 농가가 시름을 앓던 어느 겨울과 달리 올겨울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구제역과 AI로 목살을 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오 국장과 방역정책국은 지난해에도 가축전염병 발병 건수를 예년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오 국장은 올해 방역 대책이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가축전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이동제한 조치(스탠드스틸)를 내리고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끝내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스탠드스틸이나 살처분 같은 조치가 늦어지다 보니 그 사이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가는 일이 많았다. 오 국장은 “지난해 방역 정책국 설치도 방역 강화에 역할을 했다”며 “방역정책국이 생기면서 지자체의 방역 실무 조직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방역 정책 컨트롤타워로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오 국장에게 첫 사령탑을 맡겼다.

농식품부와 방역정책국이 일군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방역 상황실을 찾아 “중국, 러시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농식품부가 특별히 수고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요원들을 격려했다. 오 국장은 “격려는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웃었다.

◇“2010년 구제역 골든타임 놓쳤다” = 오 국장에게 아픈 기억은 구제역이 극성을 부렸던 2010년 겨울이다. 전국에서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오 국장은 당시에도 방역 정책을 맡았다. 그는 “처음에 구제역을 오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첫 발병 이후 대응을 하는 데 1주일일이 걸렸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상황 파악을 농장주 구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농가 출입 등 현황 체크도 어려웠다”고 했다.

2010년의 실패는 정부가 방역 정책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국장은 “그때 이후 축산 차량의 GPS 장착도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농가를 오가는 차량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구제역이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퍼졌다. 그는 “축산 차량 이동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 통제도 쉬워졌다”고 말했다.

◇‘오리 사육제한’ 반대 목소리 줄어 = 오 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방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축산농가에 가장 두려운 ‘겨울’  
올해 구제역·고병원성 AI 전문  
신속 과감한 초동조치 성과  
가축전염병 10분의 1로 감소**

**방역 강화, 농가에 부담되지만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커  
방역인력 확보율 70%대 불과  
적절한 대우, 일손 확보 큰 고민**

서도 효과적인 방역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살처분 강화가 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해관계를 전부 고려하면 방역을 하면 안 되고 방역만 하면 농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방역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방역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게 오 국장의 지론이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질병에 의한 손실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며 “누군들 싫은 소리 하는 게 좋겠다. 방역은 축산보호를 위한 것이다. 과도하게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방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 국장과 방역정책국이 도입한 지난해 ‘오리 사육제한(겨울 동안 전염병 취약 농가의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 역시 처음에는 농가나 계열화 사업자(가축 사육,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반대가 컸지만 지금은 ‘AI 예방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국장은 “지금은 농가에서 오리 사육제한에 대한 반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방역 인력 뽑아도 일 터지면 떠난다’ = 오 국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방역 인력 확보다. 가축방역관 등 공공 방역 인

수의사 출신...국가수석수의관 겸임

◇오순민 국장은...국가수석수의관(CVO)을 함께 맡고 있는 방역 정책 전문가다. 구제역, AI 대응은 물론 지난해 살처분 달걀 파동 수습까지 이끌었다. 한때 수의사로 일했던 오 국장은 방역 행정과 현장 대응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엔 구제역 확산 방지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1990년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농식품부 검역검사과장, 방역총괄과장, 방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전북 김제시 출생으로 전라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력 확보율은 70%대에 불과하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으면 전염병 예방이나 초기 대응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어렵다. 문제는 방역 작업이 고된 데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인재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 업무가 많은 농촌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하다. 오 국장은 “일이 없고 반려동물 중심인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일이 많은 농촌에서는 사람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있던 사람도 큰일이 터지면 떠난다”고 걱정했다.

오 국장과 농식품부는 방역 일손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원을 늘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 덕에 일손이 지난해보다 270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첫 직급을 현재 7급에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 국장은 “행정안전부와 수의직 공무원 6급 채용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않다”고 했다.

◇‘농가·시민,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 = 오 국장은 “농가와 시민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수칙은 마련돼 있고 농가도 방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일반 시민에게도 “철새도래지 방문은 자제하고 방역을 위한 소독이 불편하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사설

## 자영업 대책, 지원·보호는 근본해법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20일 당·정·업계 회의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자영업 대책이다. 자영업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며, 자영업자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수많은 대책이 망라되긴 했는데 뚜렷이 눈에 잡히는 게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쇼핑·커뮤니티·창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 37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 18조 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상가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도 인정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서둘러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영업 부실채권 9000억 원 규모를 조기 정리하고,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자영업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영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결국 지원과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 위기의 본질을 비켜 간 처방으로, 정책과 시장의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비정상적인 과잉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679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에 이른다. 미국 6%, 일본 11%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일자리 부족과 조기 퇴직으로 여쩔 수 없이 자영업에 내몰리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16.4%나 올랐고, 내년 또다시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다. 자영업 1년 생존율이 60%, 5년 생존율은 20%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말고 달리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길은 뻗히 보인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격적으로 풀어 투자를 촉진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변죽만 건드리고 있다.

### 한 킷



### 올해도 우리의 겨울을 덥힐 삶의 연료

경기도의 한 연탄배급소에서 배급소장이 혼자 수천 장의 연탄을 옮기고 있다. 그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람을 쓸 수 없다”며 바쁘게 손을 놀렸다. 겨울철 필수품이었던 연탄은 가스보일러 등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올겨울에도 제 몸을 태워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미끄러운 빙판길을 안심하고 걷게 해줄 것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AI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기에  
준비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마침내 완성된 SK텔레콤의 5GX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 갑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